

제438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8월20일(목)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업무보고
가. 국방부
나. 병무청
다. 방위사업청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상정된 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o 소위원장(임종득·김병주·강선영) 인사 2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7
- 업무보고 7
가. 국방부
나. 병무청
다. 방위사업청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8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진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과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 등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또 결산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과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은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합동참모의장이 마땅히 참석해야 합니다라는 을지훈련 일정상 위원회 출석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양해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장이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합동참모의장 대신에 합참 차장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또 특별히 군복지개선소위원회 이상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양당의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했습니다.

각 소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법률안과 결의안 그리고 그 밖의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청원 또 군복지개선소위원회는 군인 복지 개선 사항에 대해서 각각 소관 안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각 소위원회의 소위원 구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임종득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 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김병주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천준호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다섯 분 그리고 군복지개선소위원회는 강선영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 각각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군복지개선소위원회, 이상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 소위원장(임종득·김병주·강선영) 인사

(10시06분)

○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선임되신 소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종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임명받은 임종득 위원입니다.

지금 국방 관련 많은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조금 많이 밀린 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서로 후반기가 진행되었으니까 여야 위원들이 잘 합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성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병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임무 맡은 김병주입니다.

사실 강한 국방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가 8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8인이 합심을 해서 강군이 되도록 예산 관련 심의에서부터 또 운용 또 감독, 여러 가지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군복지개선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선영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지금 이 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 병사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합당한 처우와 복지를,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소위가 구성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군복지개선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공히 생각하듯이 군인과 군무원, 모든 분들의 사기와 복지를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감이 필요하да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천준호 위원께서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리에 들어오시면 따로 인사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훌륭하신 분들이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함께 협의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

○**임종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소위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진성준** 의사진행발언이요?

하하지요.

○**임종득 위원** 오늘 사실 후반기 들어서 사실상 첫 국방위 전체회의를 하면서 소위 4개 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최근의 지금 상황들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후반기 국방위에서 소위 운영을 하나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18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을지국무회의에서 전작권과 관련해서 임기 내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8월 1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이야기하고 19일 날 합참에서 진행 중에 있는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발표를 냈습니다.

사실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서 전작권 전환 FOC를 검증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고 10월 SCM을 통해 가지고 전작권 전환을 한미 간에 논의하기로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이 인정하고 계시겠지만 한미동맹의 중요한 부분이 전작권 전환이 큰 이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국회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PPT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올 6월 16일 날 2027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견제 장치와 통제 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세 번째입니다. ‘매 90일마다 전작권 전환 계획이행에 대한 한미 간 로드맵을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도 미 상원 의원과 같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내용을 국회의 국방위에 보고하고 또 논의하고 의견들을 모아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소위를 국방위 예하에 두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한번 듣고 위원장님이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원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진성준 그래요, 박선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선원 위원 그렇습니다. 올해 을지훈련에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축소됐는데 사실은 방어작전이 아닌 주요반격작전 부분에서 취소됐다는 점에서 임종득 위원의 문제의식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남침이 있었는데 미의 군으로부터 증원군이 와야 될 시점에 갑자기 미국의 대통령이 못 보내겠다든지, 아니면 남미에서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이동 중인 항공모함을 회항시킨다든지, 아니면 중동 전선에서 우리 동북아로 이동시킬 군 병력 이동이 늦어진다든지 할 경우에 과연 현재의 전작권 체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보더라도 전작권 전환은 반드시 최대한 신속하게 전환되어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종득 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을지훈련에서는 애초부터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 연합사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을 위한 한미 공동평가를 실시하는 연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측이 자꾸 어떤 이유든지 간에, 복합적인 이유이고 꼭 반대할 것은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성을 낮추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가 되어 있고 김정은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평화지향적 메시지를 낸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 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한미동맹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저는 볼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측의 상황에 의해서 FOC 검증이 지연될 경우에 우리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작권 환수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이 계셔서 늘 질문합니다, 미 대사관에게 ‘워싱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모르겠다’. 백악관에 물어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실 거 같냐?’, ‘모르겠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일 다시 또 FOC도 있고 하니까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실제 전쟁이 일어날 상황을 가정했을 때 매우 위험한 실질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보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각별한 국회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선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아마도 오늘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말씀들을 서로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이걸로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영 위원 똑같은 맥락이라 제가 여기서 맥을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위원장 진성준 같은 맥락이니까……

○강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주제가 있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진성준 좋습니다.

○김병주 위원 먼저 임종득 간사님 말씀한 채의에 또 여당 간사로서……

○위원장 진성준 일단 강선영 위원님 말씀 듣고, 간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월에 2027년도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을 개정하면서 미국은 매 90일마다 전쟁부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국방위에서 지금 현안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전작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관련, 한미 간의 협의 및 진행 상황을 저희도 90일마다 국방위에 국방부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일방적인 연합 연습의 축소가 이란전쟁 지원 요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거절, 그다음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체결한 25년 11월 14일 팩트시트 내용에 대한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지난 7월에—국방부 정책실장 뒤에 계시지요—그래서 올해 5월에 개최한 28차 한미통합 국방협의체, KIDD라고 합니다. KIDD를 대면 설명을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거 한 장짜리입니다. 위원장님, 한번 받아 보십시오. 한미 국방협의체 회의 결과를 이렇게 한 장짜리로 개략적으로 보고했는데, 24년도 KIDD 보고에 보면, 여기에 보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조기 경보기 정보 공유 체계, 미사일 대응 체계, UFS 연습 방향, 국방 과학기술 고급 협의체, 권역별 장비 점검 구축 정책 MRO, 사이버 동맹 훈련,

전작권 전환 실무단 점검,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도 지금 팩트시트의 내용 이후에 20% 이하 핵연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받을 것인지, 잠수함은 어디에서 건조할 것인지, 핵연료 안전성 확보와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실장한테 이거를 정확하게 KIDD 결과를 보고해 달라 했더니 개별 의원실에서 요구하면 설명이 제한된다. 왜? 미측에서도 비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비공개로 이거를 한다면 얼마든지 속 시원하게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여야 같이 계신 곳에서 미국도 90일 만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하라고 조항이 바뀌었다면 저희 대한민국국회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최소한 국회의원 정도는 알 수 있도록, 대외 공개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막을 모르면서 계속 국민들의 의심을 증폭시키고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반복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게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고 입법과 예산지원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소통하기 위한 정례적 보고를 해 달라는 것을 여기서 결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임종득 위원님께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보고를 말씀하셨는데, 강선영 위원님은 그걸 포함해서 한미 간에 제기되는 모든 군사 현안들에 대해서 보고받자는 말씀이신가요?

○강선영 위원 모든 건 아니고요.

○위원장 진성준 그러니까 정돈된……

○강선영 위원 모든 건 아니고 전작권 전환과 현재 핵추진잠수함 부분.

○위원장 진성준 그 두 가지면 되는 겁니까?

○강선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존경하는 임종득 국민의힘 간사님께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사실 전작권 전환은 우리 안보의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요성만큼이나 이재명 정부와 안규백 장관을 비롯해서 국방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안보 공백이 없으면서도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선영 위원님 말씀이나 임종득 위원님의 전체적인 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국회에 수시로 그 진행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그거는 굳이 제가 봤을 때 전체회의를 위해서 또 이것은 한미 간의 현안이기 때문에 또 비밀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시로, 꼭 기간을 정한다기보다 사실 이 전작권 전환 회의가 두 달에 한 번씩, 또 SCM이라든가 이런 회의가 있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소상히 보고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소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회의를 통해서 비공개로 하면 되는 것이지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소위원회 몇 명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또 가타부타 하다 보면 전작권 전환이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간사가 제의했으니까 논의는 뒤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소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군 복지가 중요해서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군복지소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딱 한 번 회의하고 못 했었거든요. 이런 소위원회를 만든다면 그 소위원회를 만든 취지에 맞게 진짜로 수시로 회의를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냥 한번 이슈가 될 때 만들어서 회의 한 번 하고 끝내는 이런 형식은 보여 주기식 위원회거든요. 안보는 보여 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방부의 안보를 강하게 하고 또 우리 국회가 뒷받침하는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간사님이 제의했으니까 나중에 논의는 하겠지만 사안별로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감사합니다.

임종득 위원님의 제안과 또 강선영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김병주 간사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으니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방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국방현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은 공개로 하되 답변은 비공개로 받아서 모두가 현안에 대한 궁금증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도 적극 활용해주셨으면 좋겠고, 국방부도 모든 것을 비밀주의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비공개 회의를 요청해서 비공개 상태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은 또 국민의 궁금증이기도 한 것이니까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22분)

○위원장 진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국군부대 파견에 관한 의견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서 2028년도 5월 29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연장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

가. 국방부

나. 병무청

다. 방위사업청

4.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10시23분)

○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등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4항 국방부 등 3개 소관 기관의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규백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존경하는 진성준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방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을 국방위로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장님의 국방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국방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정부 임기 2년 차를 맞아 국정 전반에 있어서 추진 속도를 높여 갈 것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군사관학교 창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AI·드론 등 첨단과학기술의 신속한 도입과 같은 핵심 현안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이어 국방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 대응, 둘째, 작전기강 확립, 셋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넷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다섯째, 국군사관학교 창설 등 이상 다섯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보고에 앞서 군 지휘부와 국방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차장 권대원 육군중장입니다.

육군참모총장 김규하 육군대장입니다.

해군참모총장 김경률 해군대장입니다.

(「안 보여요. 이쪽으로 좀 나와서 인사하세요. 보이지가 않는데」 하는 위원 있음)

해군총장 김경률 해군대장입니다.

육군총장 김규하 육군대장입니다.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대장입니다.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해병중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 간부입니다.

원종대 차관보입니다.

김은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입니다.

정철재 주한미군기지사업단장입니다.

김신숙 감사관입니다.

전준범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입니다.

오성식 기획관리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우경식 육군소장입니다.

이인구 인사기획관입니다.

이갑수 군수관리국장입니다.

박승홍 군공항이전사업단장입니다.

김기영 전력정책국장입니다.

염주성 국방정보화국장입니다.

양성태 계획예산관입니다.

국방개혁기획관의 차원준 육군소장입니다.

방위정책관 최용삼 육군준장입니다.

김선봉 예비전력정책관입니다.

성기욱 보건복지관입니다.

유희승 국방보좌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이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그렇게 하세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국방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일반현황부터 5번 결언 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국군의 임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에 관련된 군정, 군령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합니다.

3쪽입니다.

국방 조직 및 정원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1개의 차관보실과 3개의 실, 22개 국·관, 97개 과·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청으로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을 두고 있고 소속기관은 국방홍보원 등 2개 기관이 있습니다. 국직부대 및 기관은 국방정보본부를 포함하여 총 29개이며 그 밖에 공공기관으로 한국국방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인원은 26년 정원을 기준으로 공무원 및 군무원 5만 명을 포함하여 총 55만 명입니다. 4쪽입니다.

최근 안보정세 평가입니다.

먼저 주변국 정세로 미국은 국익 최우선 기조하에 대중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해 경제, 안보,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 경쟁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역내 군사적 긴장 고조와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 증강과 동맹·우방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미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 군사,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지속하며 핵심 이익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군비 지출의 소모전을 지속하며 전방위적 다극화 외교를 통해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북한은 대남 측면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남 단절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군사 및 경제적 실익 등을 목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9차 당대회와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촉구하며 민생 성과 선전으로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하고 군사 동향으로는 핵 무력의 양적·질적 고도화와 러우전 경험과 현대전 양상을 반영한 군 현대화를 병행하며 핵과 재래식 전력 강화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26년 국방정책 방향입니다.

국방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육성을 목표로 여섯 가지 국방 운영 중점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국방 운영 중점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 국방 현안입니다.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 대응부터 국군사관학교 창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경선 요새화 대응입니다.

북한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와 접경지역 군사력을 증강하는 소위 국경선 요새화 추진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MDL 일대 장애물 설치 동향과 군사 활동 변화에 대해 실시간 감시를 통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대응하되 우발적 충돌 방지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AI 기반의 감시장비 전력화 및 성능 개량을 통해 경계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규 무기체계 접경지역 배치 등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여 감시 태세를 유지함

과 동시에 화력과 방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엔사와 공조하여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 축소 및 해제하려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작전 기강 확립입니다.

최근 경계작전 간 공용화기 미사탄과 미 무인기 비행 승인·협조 단계의 미흡 사항 관련 작전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적 지·해역 경계작전 시 실탄을 삽입하며 다양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부대의 예외적 운용 상황을 확인하여 단편명령을 하달하고 국방부장관 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인기 운용 시 규정·절차에 따라 승인하고 재확인 후 운용하며 운용 시 관련 부대는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 일부 부대에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미준수하고 한미 간 협조가 미흡한 상황이 발생하여 절차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협조 체계 보완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감사관실 중심의 합동특별기강점검 TF를 구성하고 작전 기강과 관련된 사안을 집중 점검하여 취약 요인을 보완하고 엄정히 조치하여 확고한 작전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입니다.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확립을 위해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미래 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여 전작권 전환을 가시화하겠습니다. 전반기 FMC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협의회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의 연내 상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태세 완전성 제고를 위해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미국과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이전 협의 및 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잠수함 건조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건조하겠습니다.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국가적 역량의 체계적 투입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핵잠 원자력 안전 규제 기반을 조성하고 IAEA와 핵잠용 핵물질 관리방안을 협의하는 등 핵추진잠수함 건조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입니다.

인구 감소 및 미래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해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사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해 공청회와 정책설명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 수렴 내용을 심층 검토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조기 제정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추진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AI·첨단 신기술 체득이 가능한 최첨단 캠퍼스를 조성하고 우수한 교수진 확보를 위해 민간교수 처우 개선 관련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AI, 우주, 사이버 등 비물리적 영역을 포함한 공통 교육을 강화하고 각 학부의 교육체제 보장을 통해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함양하는 세계 일류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결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영역에 접목하여 전방위 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자주국방 역량을 구비하겠습니다.

또한 군인들의 직업 안정성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가와 국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소영 병무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안녕하십니까? 병무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진성준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2대 후반기 국방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병무청은 병역자원 감소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과 신뢰의 병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는 물론 병역의무자의 정신건강검사 강화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모집병 선발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병역의무자 중심의 병무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력을 적기·적정 충원하고 동시에 청년의 미래설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병무청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인환 기획조정관입니다.

정재숙 병역자원국장입니다.

최정효 입영동원국장입니다.

서승일 사회복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김인환 기획

조정관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그렇게 하십시오.

○병무청기획조정관 김인환 안녕하십니까?

병무청 기획조정관입니다.

병무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주요현안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3쪽, 병무청 임무 및 기능입니다.

임무는 징소집·전시 병력동원, 병역의무자 관리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이며 기능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조직은 본청 1관 3국과 지방병무청 11곳을 포함 총 18개의 소속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은 6월 말 기준 1940명입니다.

5쪽, 2026년 세출예산 현황은 6월 말 기준 총 5178억 원 중 집행액 2605억 원으로 50.3%를 집행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6쪽, 병역의무자 관리현황입니다.

관리인원은 징소집 대상, 보충역 복무자, 병역동원대상 등 총 675만여 명입니다.

7쪽, 주요업무입니다.

9쪽, 병역(입영) 판정검사입니다.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 가능 여부를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해 판정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첨단 의료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등 정확한 병역판정을 위한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병역의무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병역판정 검사결과를 연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기반의 얼굴과 신분증 대조 등 수검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10쪽, 현역병 충원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각 군과 협업하여 군별·시기별·특기별로 현역병을 균형 충원하고 모집병 선발 방법 간소화 등 선발 체계를 개선하여 청년세대 입영준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입영정보 제공과 청년 선호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사회복지요원 소집·관리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우선 배치와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무기관 배치로 공익성을 제고하고 4대 중독 예방·창업·금융 등 교육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복무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 복무 부적응자는 현장방문으로 집중 관리하는 한편 전자적 출퇴근 관리시스템 도입 등 선제적 복무관리로 성실 복무를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산업지원인력 편입·관리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위주로 인력을 배치하고 근로환경 우수업체를 지정업체로 선정하는 등 안정적 복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현장 실

태조사 확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협업하여 근로권익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태조사 강화 및 권익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병력동원(훈련) 소집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적소특기자 등 정예자원 동원지정과 관계기관 협업, 전시상황, 예비군 지원물자 확보로 병력동원태세를 확립하고 수송사고 예방 활동과 출산휴가 등 청년맞춤 연기제도 운영으로 안전하고 내실 있는 동원훈련 소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 일원화를 위해 법령정비 및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대체역 심사·소집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법률·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정한 편입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복무관리와 복무형태 변경 등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여건 개선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주요 현안입니다.

17쪽,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인터넷상 병역면탈 조장 정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단속범위 확대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과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데이터 기반 과학수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 장기 체류를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단속시스템 고도화 등 특사경 과학수사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 병역감면제도 개선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병역자원 감소와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병역감면 제도의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제도 운영 실태와 법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과 관련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에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는 제도개선 마련과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입영연기 제도개선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출국대기 사유 연기 신청자의 제출 서류를 없애는 등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였고 연기 사유별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연기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하반기 첫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과 방위산업 육성, 군수품 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방산업계의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네 가지 핵심 추진과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첨단기술 투자와 제도 혁신을 병행하여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전력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KF-21 등 핵심전력 획득을 본격화하며 3축체계 고도화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획득제도를 구축하고 민간 신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부품 국산화와 공급망 관리로 방위산업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우수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인프라·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정부 주도로 권역별 글로벌 방산 협력을 추진하고 K-방산수출펀드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여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방산 4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입니다.

정기영 미래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김경호 기획조정관직무대리입니다.

정범승 방위사업정책국장입니다.

이형석 방위산업진흥국장입니다.

윤창문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입니다.

고형석 기동사업부장입니다.

최상덕 함정사업부장입니다.

노지만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입니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입니다.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입니다.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김경호 기획조정관직무대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직무대리 김경호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직무대리입니다.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및 구매하여 적기의 소요군에 공급하는 방위력개선 사업, 자주국방 기술역량을 확보하는 국방 R&D, 안정적인 조달시장 조성 및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총 19조 9653억 원으로 세부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쪽입니다.

방위사업청 조직은 7개의 관·국과 3개의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연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두고 있습니다. 인원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의 중점 업무에 대하여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첨단기술과 핵심전력을 확보하고 획득체도를 혁신하겠습니다. AI·유무인체계의 첨단항공엔진 등 미래 첨단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험 인프라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198개의 방위력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특히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및 우주전력과 유·무인복합체계 획득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기술을 빠르게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하여 연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탄탄한 공급망, 상생하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공급망의 위기징후를 조기에 식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요 방산 소재·부품의 비축도 확대하는 등 방산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무기체계 부품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요 부품은 선제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하고 소재나 부품 공급기업의 시설 교체, 자동화설비 등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상생 활동을 평가하여 우수 기업은 상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글로벌 방산시장에 대·중소기업이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방산 분야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전주기 육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산청년뉴딜 정책을 통해 청년의 고용과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방산에 진입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제 개발과 개발된 제품의 군 실증을 지원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길지원사업과 글로벌 공급망 진입사업 등의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K-방산 글로벌 협력 및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북미·중동·유럽 등 권역별로 전략적 방산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수출시장의 확대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미 정부 도입 정책에 대한 컨설팅, 해외 방산전시회 통합 지원, 방산 수출펀드 투자 확대 등 여러 지원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K-방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첨단기술과 획득제도 혁신을 통해 우리 군이 첨단 강군이 되도록 뒷받침하고 방위산업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

했습니다.

이상으로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마치했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제안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규백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국방부 세출예산 현액은 46조 3914억 원이며 43조 8567억 원을 집행하고 7963억 원은 이월, 1조 7384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688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343억 원을 수납하였고 2313억 원은 미수납하였으며 32억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4조 2111억 원이며 이중 42조 6691억 원을 집행하였고 7685억 원은 이월, 7735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입 결산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592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077억 원이며 이중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에 5860억 원을 지출하였고 143억 원은 이월, 74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615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726억 원이며 이중 군사시설 이전 등에 6016억 원을 지출하였고 135억 원은 이월, 9575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군인연금기금은 4조 6682억 원을 조성하여 연금지급금 등으로 4조 5514억 원을 지출하였고 1168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1조 1786억 원을 조성하여 복지시설 운영 및 전세자금 이자지원 등에 6776억 원을 지출하였고 5010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소영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병무청은 병역이 감소되는 환경에서도 적정충원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서 이루어진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2억 56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9억 1800만 원으로, 이중 7억 1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억 6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

증인 체납 과태료 4800만 원, 징계부가금 2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731억 9600만 원으로, 이중 97.4%인 4610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1억 58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사회복지무이행지원, 병역의무자지원 사업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자산은 전년 대비 63억 2700만 원이 증가한 3866억 2500만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567억 6700만 원이 증가한 2330억 9000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존경하는 진성준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청에 주시는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방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한 해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첨단전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방산생태계 구축과 방산수출 확대를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첨단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개혁과 급변하는 미래 전장환경 대비를 위해 AI, 국방반도체 등 첨단기술 확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위사업청의 노력의 과정인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241억 원이며 990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5163억 원을 수납하였고 4740억 원은 미수납 상태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FMS 운용수익금과 출연금 반납액 등 경상이전수입이며 주요 미수납 내역은 소송·중재 등으로 인해 징수가 지연된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 등의 위약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8조 545억 원입니다. 이중 92.9%인 16조 7714억 원을 집행하였고 7499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332억 원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자산은 전년대비 2조 744억 원 증가한 33조 7151억 원이고 부채는 전년대비 6369억 원 증가한 1조 137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결산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공춘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총액은 49조 6883억 원이며 집행률은 97%로 전년도 99%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로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에서 총 5002억 원 규모의 연말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이·전용액은 68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군 배상금과 군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사업에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이·전용 규모를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부사관 인건비 사업은 부사관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중 기본급은 최근 3년간 다른 사업으로 이용·전용되거나 조정되는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예상한 인력운용 수준과 실제 운용실적 간에 격차가 확대되면서 기본급 예산이 실제 소요보다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요에 맞게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6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병영기본지원시설 사업은 병영식당·화장실·여성필수시설 등 장병의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655억 원 중 2145억 원이 집행되어 다소 부진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GOP 지역의 여군 근무인원은 21년 78명에서 25년 283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25년 기준 GOP 소초의 여성화장실 미설치율은 40.7%에 달하는 등 여성 군인의 근무여건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GOP 지역의 여군 증가 추세와 실제 시설 소요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반영하여 여성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10페이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액은 18조 545억 원으로, 이중 16조 7714억 원을 지출하였고 749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5332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연말 국고 사정으로 미지급된 5449억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기체계별로 살펴보면 지휘정찰사업은 예산현액 1조 8177억 원 중 82.9%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다목적무인차량 사업의 계약 지연에 따른 불용과 군위성통신체계-Ⅱ 패키지 시설사업 예산의 이월 등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함정사업은 예산현액 2조 1435억 원 중 89%를 집행하였는바 한국형 구축함 사업의 착수 지연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외 기동화력사업, 유도무기사업, 항공기사업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집행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은 24년부터 27년까지 총 4854억 원을 투입하여 현행 경계시스템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전력화할 계획이었습지만 구매시험평가 과정에서 3개 제안 업체의 장비 모두 결함이 확인되어 예산집행과 전력화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현재 구매시험평가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방위사업청은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4~16페이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철매-Ⅱ 성능개량 2차 사업은 배치된 철매-Ⅱ 성능개량 유도탄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총 64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유도탄 저장고 시설공사 과정에서 소요 수정과 재설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총 사업비 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총사업비 조정 및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시설공사 지연이 유도탄 전력화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성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환 전문위원입니다.

병무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요약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병역판정검사 내역사업 중 잠복결핵검사의 집행 부진에 관한 지적입니다.

병무청은 2025년 잠복결핵검사 예산 35억 6000만 원 중 9억 6800만 원을 불용하여 불용률이 27.2%에 달했습니다. 이는 잠복결핵 위탁검사 건당 편성단가와 실제 계약단가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실제 집행단가 추이를 반영해서 불용

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운영 사업입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후 삭제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8일 이내에 명단에서 삭제하여야 합니다.

2025년 250건의 명단 삭제 중 8일을 초과하여 삭제된 건수가 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의 경우 서울청 등 7개 청은 매년 동일한 안전점검 용역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안전점검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 업체와의 매년 반복적인 수의계약은 특혜 제공이나 유착 의혹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병무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은 위원님들의 결산 대체토론을 마치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 이번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서면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는 것에 한해서 소위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상정된 국방부 등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반기 첫 회의니까 제가 각론보다는 개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작년 7월 취임 이후 이제 만 1년이 지났는데요. 취임 이후 표출된 여러 가지 국방 관련 현안 중에서 대표적으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제가 한번 PPT로 모아 봤습니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북한군이 침범해도 경고사격을 자제하고 전방부대 병사들에게는 삼단봉이나 빈 총을 쥐고 경계하라고 하고 또 내년부터는 전방지역 스물세 곳의 대전차장애물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군사대비태세의 이완이 상당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금년도 UFS 연습이 일부 종료를 예고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한미연합연습 총량이 30% 감축되었고, 지난 3월 통일부장관의 미공개 핵시설 정보 유출 이후로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핵시설 관련 정보 공유가 중지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국 무인기를 우리 군이 오인해 사격할 뻔한 소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 시기,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 등에 대해서 이견도 발생해서 한미동맹 균열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기념관에서 항미원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첩사가 7월 31일부로 해체되면서 간첩들의 첩보 수집 활동에 날개를 달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사관학교 통합, 매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총기·탄약 관리 부실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우 증가하고 있어서 국가안보와 군의 기강, 장병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말한 게 아니라 현재 국방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국민의 우려를 눈에 띄는 것만 골라 봤습니다. 장관님, 이런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집행하고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오늘 개론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꼼꼼히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17페이지에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라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이게 마치 굉장히 잘될 것 같은데, 북한군의 전선지역 요새화는 28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국방부에서도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AI기반 GOP경계체계는 언제 완료됩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2개의 사단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에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지금 계획대로라면 2035년에서 40년에 완료 계획입니다. 그러면 북한군의 요새화 28년과 35년에는 7~8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PPT를 봐 주십시오.

북한군은 MDL 인근 불모지 작업은 지금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뢰를 매설하고 삼중 철책을 설치하고 전술도로를 보강하고 대전차 방벽 건설 등을 비롯해서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진지와 관련된 건물을 대거 신설하는 것으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거리 60km의 신형 자주포,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라고 하지요—그리고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미사일 KN-23·24를 전방군단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를 봐 주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북한군의 요새화 작업이 어제오늘 시작됐느냐? 아닙니다. 총참모부는 이미 2020년에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다시 진출시켜 전선을 요새화시키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김정은이 계속해서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선지역 요새화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국방부가 그동안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엔사와 공조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지금 국방부가 유엔사와는 협의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 보면 북한군의 군사 요새화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우리 군은 주장하는데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유엔사가 경비·정전집행여단을 창설해서 정전협정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장관님이 합의를 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북한군의 전선지역 요새화를 평화적으로 제재하려면 유엔사가 하려고 하는 정전협정 관리를 위한 정전집행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장관님, 왜 이 창설을 반대하고 계신지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북한군 국경선 요새화 관련하여 좌표 설정 등 여러 가지 대응 전략·전술을 지금 다 세워 놓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제가 대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장소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제한됩니다.

○강선영 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병주 위원 지금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의도로 이것을 했는지, 그 의도 속에서는 북한과의 물밑접촉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반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는데, 보니까 어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반응을 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이러한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다. 다만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라고 했어요. 전혀 알지 못하다는 것은 부인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물밑접촉이 있는 것으로 저는 평가가 되는데 국방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나 평가한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정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김여정 담화를 보면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더 세부적인 분석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의 물꼬가 터져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과의 이런 소통이 되어서 열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따라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저께 SNS에 ‘한미연합 축소를 통해서라도 평화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낮추고 우리 군사력을 높이는, 위협을 낮추는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으로 보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동의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를 해라. 내가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해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지난번 1년 전에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 가지고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서로 간에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김병주 위원** 예, 그 맥락에서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에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FOC 평가)를 이번 훈련에 해야 되는데 1부 훈련만 하고 2부 훈련이 중단되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지 않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1부 평가에 대화력전을 비롯한 2개의 평가가 이미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사실 기간적으로는 1부 하고 2부를 하니까 반이 취소된 것 같지만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을 한 저로서 연합훈련을 주도해 본 것으로는 한 80%는 한 거예요. 사실은 연합훈련 하기 전에 이미 미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연습이 있었고 각 1부·2부 행사에 대한 락 드릴(ROC Drill) 훈련, 지휘소 훈련 이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번에는 평가항목이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항목을 전반부에 하게 돼 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국민적인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을 국방부에서는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연합 정비태세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우려는 있거든요.

2018년도에 또 이런 사항이 있었지요. 그때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6월 달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8월 달 훈련을 안 하겠다 해서 그때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미국 브룩스 사령관하고 상당히 당황을 했고 그런 공백을 없애는 것이 뭐냐 해서 8월 이후에 2박 3일씩 몇 번 훈련을 해서 공백을 메웠어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장관님이 지시해서 연합사 자체 내에서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 줘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면서도 연합 대비태세는 추호도 이상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UFS 연습과 훈련이 끝난 다음에도 한미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훈련 자체가 아주 균질하게 이후에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 내년부터 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선택적 모병제라고 하면 입대한 장병들한테 선택권을 주어서 모든 장정들이 군대 가는 개병제를 전제로 해서 내가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갈 것인지, 병사로 갈 것인지 거기서부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약 3000여 명 정도의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발해서 이들로 하여금 최첨단 무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그 기간은 3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이것을 내년부터 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빨리 그 초안을 발표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내년에 할 수 있게 그런 과정을 국방부에서 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성일종 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고받으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성일종 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약간 숫자는 상이한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북한에 57개가 됐든 또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에 상이하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57개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인정하는 거란 말이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미국 대통령이 57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인정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미국의 보수집단이나 연구기관에서 어바우트(about) 57개로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은데 한국의 국방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저는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김정은과의 대화의 목적이 북한 비핵화인가 얘기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던 말이에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화전양면 작전을 구사하려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것, 비핵화정책을 지금 어떻게 장관님께서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성일종 위원** 변화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성일종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은 북한이 지금 5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장관께서는 ‘우리 정부가 파악하는 것하고 상이하다’ 그랬거든요. 북한이 핵을 몇 개 정도를 개발했다고 우리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북한이 지금 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장관님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57개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개수에 대해서는 좀 상이하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정하기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플루토늄 생산량이랄지 또 보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전략 자세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갖고 가는 우리의 대응은 뭡니까?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고 장관께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숫자만 틀리다. 그러면 우리의 대응방안은 뭡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지마는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성일종 위원** 아니, 적절한 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57개라고 숫자까지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핵이 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우리보다 통신자산이나 감청자산이 훨씬 많은데 거기서 이미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장관께서도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 핵을 갖고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한반도의 비핵화 논의는 제가 말씀 처음부터 드렸다고 지속적으로 저는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성일종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갖게…… 미국은 벌써 57개 인정을 했고 장관께서도 인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핵을 개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NPT에 가입이 돼 있고……

○**성일종 위원** 그러면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미국의 전술핵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NPT에 가입한 나라고……

○**성일종 위원** 그러면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계속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미가……

○**성일종 위원** 그러면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전술핵도 안 가져오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래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확실히 받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일종 위원**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위원장 진성준** 의사진행발언이요?

하하지요.

○**김병주 위원** 김병주입니다.

사실 북한이 핵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장관님께 핵에 대해서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 질의는 저는 국방위원으로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정책은 변함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책임 있는 국방부장관에게 우리가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 안보에 사실은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은 우리 안보에 아주 큰 해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대신 그 질문의 형태는 북한의 핵 위협은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3축 개념이든 또는 확장억제 정책이든 비핵화 정책이든 하는 것은 하는데 북한의 핵 보유를 몇 개 갖고 있느냐라는 이런 질의는 국방위에서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북한을 오히려 이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핵 보유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도와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좀 거기에 대해서는 유념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용어를 북한의 핵 위협이 실제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꼭 성 위원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국방위원으로서 그런 절제된 용어는 꼭 필요하다, 국회 전체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성일종 위원님한테 조금 화살이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국가안보에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6년 동안 국방위에서 줄곧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꼭 성일종 위원님을 겨냥한 말씀은 아니다 이런 해설까지 있었는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성일종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유영하 위원님께서 대신하셔도……

○**柳榮夏 위원** 제가……

○**성일종 위원**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유영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3분 드릴게요.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같은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그 질의를 평가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늘 그렇습니다. 서로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는 국민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57개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그래서 국회의원으

로서 그 수치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장관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이 적절치 않다 해서 회피하시는 것까지는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동료 질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평소 제가 김병주 위원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데 이번은, 저희가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같은 동료 위원들끼리. 그 범위를 조금 넘어서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이왕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자료제출의 건에서 조금 국방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국방부가 답변이 굉장히 불성실했습니다. 1군단에서 발생한 빈 총 경계와 관련돼서 과연 이게 군단장의 독자적인 변경 지침이 되냐 아니면 합참 지침과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이랬더니 국방부에서 온 게, 열흘 만에 온 게 군사기밀이라서 주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언론에서 지금 이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군단장이 독단적으로 지침 변경을 했는지, 해당 내용이 합참과 지작사에 어떻게 보고됐는지, 경고방송, 경고사격, 경계서 이것 다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데 기밀이라고 안 준다? 그러면 언론은 도대체 무슨 수로 이런 기밀을 획득해서 보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전이 됐을 때는 과연 공군의 작전 수행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투조종사 비행교육에는 문제가 없는지, 예산과 서산으로 대체기지를 만들 때 해당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군은 뭐랬나 하면 취합해서 자료를 오는 까지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회의가 시작될 때까지 자료를 안 쏘았습니다.

만약에 국가안보에 직결된 핵심 비행단의 기능을 이전하면서 그 작전성과 교육체계에 대한 검토자료 하나 제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회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파악한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군사기밀일 때 보안부서의 보안성 검토를 통해서 등급을 낮춰서 보고했다는 선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합참 및 1군단 그리고 광주 군공항 기능 이전 자료는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위원장께서도 관련 기관에 엄정히 경고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성일종 위원님, 당사자시니까 잠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지금 이 핵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57개를 얘기를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할 거냐 얘기를 하니깐 이것을 언급을 안했다라고 대답을 한…… 우리 안보에 아주 중요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되는 정책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비핵화 정책을 포기한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의 엄청난 안보의 지형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에서 질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숫자야 장관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숫자든 대한민국 정부의 숫자든 이것 틀릴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4성 장군 출신으로 안보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 중에서. 그런데 이것을 안 다루면 어떡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장관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정도가 됐으면 청와대 NSC가 열려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지금 현재 이 비핵화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해 온 모든 것들이, 미국이 지금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이 현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고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북한의 핵 문제인데 장관이 오늘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비핵화를 계속 추진합니까, 이게? 그리고 그 비핵화의 가장 당사자가 바로 우리이고 미국인데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더 드릴 텐데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이것을 국회에서 안 다루자고 하는 것은 회의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장님.

○위원장 진성준 장관님, 답변하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성일중 위원장님의 말씀에 제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추정한다는 그런 말씀의 취지를 내가 드렸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NCG를 통해서 확장억제를 하고 있고 또 3축체계를 고도화시키면서 거기에 대응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NPT에 가입한 나라고 IAEA의 사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지려야 가질 수도 없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유영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의 문제 저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평문화해서도 제출할 수 있고 정히 제약이 되면 대면으로 보고하실 수도 있는 사안인데 국방부나 군 당국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얼버무린다는 것 그것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유영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고양시 김성희입니다.

요 며칠 외교안보를 둘러싼 국내 정쟁을 바라보면서 Politics stops at the water's edge라는, 즉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정치 격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저 격언을 지키지 않았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편향된 이념을 가지고 국민을 불안하게 선동했던 일들, 국익을 훼손했던 일들, 소위 말하는 안보 장사를 많이 봐 왔습니다. 평화의담, 수지 김 사건, 총풍 사건, 선거 때마다 나오는 중북몰이가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에 대해서 국회가 감시를 하고 통제와 지원을 하는 것과 안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멸절된 동맹에 균열이 난 것도 아닌데 훈련에 대한 일부 조정에 대해서 마치 대한민국 안보 전체에 공백 사태라든가 난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미국하고 지금 훈련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용 정치적 발언들이 정부의 협상력을 악화시킬까 좀 걱정이 되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마음은 다 같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단도직입적으로 미국과의 협상 파트너로서 직접 느끼시기에 한미동맹 튼튼하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소통이 잘되고 있고 견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전작권 전환도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자주국가로서 경제력과 군사력, 문화에서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게 당연한 일로 좀 보여줍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론이 없습니다.

○김성희 위원 미국과 이미 합의된 사항이고요. 연합사 창설 당시부터 여야 구분 없이 꾸준히 추진해 온 자주국방의 정책입니다. 이것 국민들 중에는 잘 모르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노태우 정권 때 평시작전권을 가져왔고 현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 합의도 박근혜 정부 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무슨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는 일인 것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36개 동맹국 중에 전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 딱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국의 방위는 스스로 해야 된다, 최근의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볼 때 정말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진척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세계 유엔에 가입한 193개 나라 중에서 전작권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은 방산 수출 세계 4위, 국방력 세계 5위, 경제력 세계 10위입니다. 저는 스스로 자주국방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차고도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군이 능력이 부족해서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전작권을 억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미가 공동으로 능력을 검증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작권 전환 차질 없이 진행하실 예정인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거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병들이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군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UFS 연습이 조정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작권 전환, 특히 FOC 같은 경우에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지 않습니다. 17일부터 21일까지인데요. 이미 FOC에 대한 검증 평가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타의 FTX, 그러니까 실야외 기동훈련 이런 부분들은 UFS 훈련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협의해서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다.

○**김성희 위원** 이것도 항간에는 우리 국방력과 북한에 대한 방어 능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UFS 훈련을 일주일 줄인 것 가지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미국은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즉시 워싱턴에서 날아온 얘기를 우리 연합사 사령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대신합니다.

○**김성희 위원** 일부 축소된 훈련도 나중에 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실 계획인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 과거에 중단된 사례를 보면 92년 비핵화 국면 때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된 적이 있고 2018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미 협상에 따른 연합훈련도 축소가 있었고 코로나 때도 축소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안 했다고 대한민국 국방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가 가장 완벽한 안보 자산이라고 믿는 우리 근본 한미연합 연습, 야외 기동 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공감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장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대통령께서 8월 10일 날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을 위해서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제1전투비행단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1전투비행은 공군에서 유일하게 전투임무기 조종사 고등비행교육을 담당하는 제189·216 비행교육대대에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柳榮夏 위원** 그리고 전술입문과정과 서남권 영공 방위를 담은 206 전투비행대대가 있는 것도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지금 현재 국방부 계획대로 하면 189와 216대대는 예천으로, 206대대는 서산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 2028년 중순의 날짜를 못을 박으셨는데 그전에 장관께서 혹시 공군으로부터 이 비행단 기능을 이전시키는 작전성 검토에 대한 결과보고서나

그런 관련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작전성 검토에서 전력적으로 또 최소화시키기 위한 영향성 평가……

○柳榮夏 위원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작전성 검토보고서?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柳榮夏 위원 제가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장관께 여쭙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대강의 보고서는 받아 봤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 대강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8월 10일 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8월 7일 날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다른 기지로 소산하는 데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군 보도입니다. 여기 이 결과 보고서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 기억으로는 3년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안보를 배치하는 건 이삿짐 날짜를 받아서 이사를 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건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柳榮夏 위원 이걸 만약에 공군에서 비행단 이전을 하려면 이 비행단을 이전하면서 국가안보에 문제가 없는지, 전투조종사 양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걸 검토해서 그리고 상부로 보고해서 날짜를 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순서가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8월 중순이라고 뜻을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어떤 보고를 받으셔서 2028년 8월 중순까지 이 비행단을 이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고요.

지금 이 비행단 이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189·216대대를 이전하는 것은 T-50 비행대 몇 개를, 활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 기체만 옮기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터, 학과 교육시설, 정비지원 체계, 교육국 건물까지 다 옮기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광주기지는 지난 10년간 수백억을 들여서 시뮬레이터를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이전되는 예천기지가 어떤 기지입니까? 현재 예천기지에 TA-50을 운영하는 115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115대대가 제가 알기로는 충주의 중원비행장으로 이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장관님,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전투임무기, 고등비행교육과 전술임무과정을 하는 4개 대대가 동시에 이전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전되는 건 뭐냐 하면 조종사 양성체계에 정말로 문제가 저는 발생한다고 봐요. 더군다나 예천기지는 장관님 잘 아시잖아요. KF-21의 선도 기지 아니겠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56 전투대대를 전력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202대대까지 옮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T-50 교육대대 2대가 들어가요. 그러면 아직 KF-21에 대한 시설공사도 제가 알기로는 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활주로는 그대로인데 비행대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출격수가 저절로 늘어

나지 않는 건 장관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KF-21 전력화와 고등비행교육이 동시에 진행될 때 당연히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병목현상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소하는지?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요. 나중에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행교육수요가 늦어지면 비행조종사 1명이 늦게 되는 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술입문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조종사가? 그다음에 기종 전환을 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일선 전투 비행대대 배치까지 됩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순연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 신규 조종사 공급이 늦어지면 기존에 있는 조종사들 비상 대기, 그다음에 작전, 훈련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통령 임기 내에 호남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안보보다 이걸 더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대통령 결정이 성급했다면 장관께서 군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해서 바로잡는 게 저는 장관의 올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전 관련해서는 신규 시설과 인프라 구축 등 우리 군의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최소화시킬 그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상세한 말씀은 공군총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공군참모총장,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지난 기간 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현재 작성 중이고 보안성 검토 중이고 조만간 곧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전하는 시설, 수용하는 기지 그리고 대비 태세, 조종사 양성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했다는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고, 장관과 함께 또 관련 기관과 함께 다 같이 검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柳榮夏 위원 총장님, 그러면 저희가 오늘 오후 질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그 부분은 지금 보안성 검토 중인 상황이라 좀 더 확인하고.....

○柳榮夏 위원 만약에 오후에 질의가 있으면 제가 장관에 대해서 총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알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본회의 전에 오전 질의를 위원님들 가급적 많은 분들이 질의하시게 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본회의를 진행하고 본회의가 산회하면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홍철 위원** 경남 김해시갑 민홍철 위원입니다.

다시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와서 장관님과 여러 장병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요즘에 국방 현안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대비 태세라든지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안규백 장관님, 이하 여러 각군 총장님 그리고 여러 국방부 직원, 장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그 전에 광주비행장 관련된 아마 미군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현안을 저도 제출을 해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제한된 사항이 있다 해서 제출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함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사관학교 통합 문제 이게 곧 8월 26일 날 국방부 공청회 하신다고 발표를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8월 26일 날로 잡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사관학교는 통합을 해야 된다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우수한 장교단이 구성돼야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도 필요하지만 경쟁력 있는 장교단이 구성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동의를 합니다.

현재 우리의 각군 사관학교의 여러 가지 수준을 보면 과거보다는 지금 아쉬운 감이 많이 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민주주의 교육뿐만 아니라 체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교육을 포함해서 헌법교육을 포함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장교를 양성해 내야 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사관학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군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도 한 30여 개국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민홍철 위원** 그래서 사관학교를 개별로 둘 거냐 아니면 통합해서 통합 교육을 시켜서 우수한 장교를 양성할 거냐의 것은 그 나라의 역사와 또 군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딱 정해진 정답은 아니라고 보지만 현재 우리 군의 상황, 장교단의 상황을 볼 때는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현재 국방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 안 돼 있습니다라는 발표한 내용을 보면 통합 선발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통합 선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군의 특성을, 물론 합동성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군의 특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군의 정신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통합을 하더라도 계열별 모집이라든지 아니면 단과대학 형태의 운영 측면에서 모집을 할 때부터 각 군종별로 따로 모집

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 그것이 오히려 더 현재의 체제도 유지하면서 통합 교육의 목표도 달성하고 경쟁력 있는 장교를 양성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공군사관학교라든지 해군사관학교의 시설 활용 문제도 따릅니다. 그래서 계열별로 모집하거나 단과대학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의 시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현재 벌써 지금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지역주민들도 벌써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반대를 하고 있고. 혹시 그 시설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떠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지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계열별 모집이나 단과대학 모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통합 사관학교에 군 관련된 학과뿐만 아니라 일반, 첨단무기체계 학과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일반사관대학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금……

○위원장 진성준 1분 더 넣어 주시지요.

○민홍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예, 1분 내에 정리해 주시지요.

○민홍철 위원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사관을 일반인들을 특채해서 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되려면 군인사법을 또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역으로만 복무하도록 하고 있고 물론 일반 공무원도 국방부에 근무합니다마는, 우수한 사회 전문가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군 현역으로 특채할 수 있는, 계급을 막바로 중령이나 거기에 걸맞은 지위를 부여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군인사법을 개정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우수한 군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제도를 좀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인 군 장교 양성 과정의 ROTC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또 OCS 관련된 일반장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성 과정을 포함해서 국군사관학교 통합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이 여러 가지 통합 선발의 방법, 모집 또 커리큘럼, 기존 시설 활용 방안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열린 자세로 지금 듣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하람 위원 장관님, 탈영 의혹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글썽요. 제가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하람 위원 저희가 그래서 실제 저희 당 정책연구원에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보니까 63.5%의 국민이 장관님의 탈영 의혹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과반을 넘어서 10명 중 6명은 넘는 수치입니다. 이게 단순히 장관님의 어떤 개인적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군의 사기나 기강 문제 그리고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의 문제와도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장관님께서 억울하신 부분이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병적기록표를 공개하셔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습니다. 그건 완전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기호 위원 아들입니다.

○천하람 위원 한기호 위원님 아들인 것……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만약에 제가 공직을 그만둔 뒤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천하람 위원 장관님께서 동료 위원, 한기호 위원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게 좋은데 그 정도까지 자신감이 있다 이러면……

○국방부장관 안규백 왜냐하면 한기호 위원이 맨 먼저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하람 위원 그 정도까지 의지가 있다 그러면,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울 게 없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공개하시면 해결될 문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실제로 국민들께서도 63%가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병적기록부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은 84.7%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나 하면 이게 사실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깔끔하게 공개해서 의혹이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천하람 위원 또 똑같은 말씀 반복이시니까 잠시만요. 제 얘기 좀 들어 보십시오.

제가 언론보도 보니까…… 장관님께서 혹시 본인 병적기록표를 여당 의원들이나 관계자한테 열람시켜 주신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 언론보도 보니까 여당 관계자들이 병적기록표 봤더니 탈영·영창·구금 없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말한 게 있는데 그러면 장관님하고 협의도 안 되고 실제로 보지도 않은 여당발의 해괴한 언론 플레이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글썽요, 그건 제가 알 수 없지요.

○천하람 위원 병무청장님, 혹시 여당 관계자들한테 장관 병적기록표 보여 주신 적 있으세요?

○병무청장 홍소영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병적기록표에 ‘구금 30일’이라는 기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건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주실 수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장관님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믿으실 수가 있을까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못 해 주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천하람 위원 지금 계속해서 장관님 말씀하시는 게 이걸 공개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퇴임하고 바로잡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병무행정에 오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 야당 위원, 저한테라도 대면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열람이라도 시켜 주시고 설명이라도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 오해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제가 대국민 기자회견이라도 하겠습니다. 혹시 저한테는 열람이나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공직을 마치고 반드시 그 부분을 바로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장관님, 제가 규정을 봤더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런데 지금 청문회가 끝난 지가 한 1년 하고도 몇 달이 지난 상황에서 왜 이 문제가……

○천하람 위원 아니지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이 여론조사를 한 게 최근입니다. 84%가 넘는 국민들이 이게 공개가……

○국방부장관 안규백 사실과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천하람 위원 그러면 사실과 다르면 이것을……

장관님, 장관님이 지금까지 국방위원으로서 청문회 하시면서 국방부장관 청문회 네 번 하셨지요? 그때 네 번 전부 다 병적기록부 받아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후보자들이 ‘저 문제없습니다’ 하면 그 말 다 믿으셨어요? 그것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는 그냥 ‘내가 뭐라고 말하면, 문제없다고 말하면 다 믿어라’, 그게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실제로 지금 60%가 넘는 국민들이 못 믿겠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군대의 사기 문제, 대국민 신뢰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병무청장님, 지금 장관님은 퇴임하면 바로잡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병무청 규정 보니까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여기 보면 병적기록의 오류가 확인이 되면 정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병무청에서 정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내가 병무행정의 피해자다, 오류가 있다, 착오가 있다라고 하는데 병무청장님, 실제 착오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리고 확인됐으면 이것 정정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퇴임할 때까지는 기다려 준다는 규정 있어요,우리 병무청 규정에?

○**병무청장 홍소영** 병적기록을 정정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병적기록이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하람 위원**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문제 있다고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무청장 홍소영** 저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 이어서 바로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진성준** 그러시지요. 짧게 해 주십시오.

○**천하람 위원** 예. 방금 들으셨겠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박선원 위원** 질의하고 의사진행발언 3분씩……

○**천하람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취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이해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천하람 위원** 제 의사진행발언의 기본적인 취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명의로 병무청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의 병적기록표를 제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받아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농해수위, 환노위 등에서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위원회 명의로 자료 요구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병무청에서 안규백 장관의 병적기록표 등 자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안규백 장관이 계속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에 따라서 제대로 공개도 되지 않고 국민적인 의혹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론조사 수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장관의 명예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의 대국민 신뢰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회 차원에서 공개 의결, 자료제출 요구 의결을 해서 실제로 받아 봐서, 인사청문회 한 지도 한참 됐는데 이런 의혹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다소 소모적인 이런 부분들, 정말 제대로 자료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요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 잘 협의해 주셔서 이번에 위원회 차원에서 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지요. 질의 끝나서 나서……

○**위원장 진성준** 박선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선원 위원** 해당 질의를 하고 나서 바로 의사진행발언으로 연이어 가지고 같은 주

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의사진행발언은 본인이 질의 끝나고 다른 성격의 문제라든지 진행에 있어서 서로 약간 수정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을 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지 자신이 한 발언 그대로 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또 추가로 같은 내용으로 3분씩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제대로 된 운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훨씬 더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그런 점을 해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먼저 답변드리고.

천준호 위원님, 잠깐 발언시간을 드릴 텐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천하람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위원회 차원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질의 과정에서 소화를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발언시간이 다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 뒤에 이어서 질의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중에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민홍철 위원님께 추가시간을 드린 것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꼭 의사진행발언하셔야겠습니까?

○천준호 위원 예.

○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천준호 위원님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을 때 우리 국방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인사말을 곁들여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진성준 그러시지요.

○천준호 위원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께서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그것으로 본인의 주장이나 발언에 대한 근거로 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또 이미 언론에 알려져 있는 것들을 인용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지만 자기 정당의 자체 내부 조사를 인용해서 그것으로 정당성의 근거를 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신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미 하신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치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 수치의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게되어 있는가 또 질문은 어떤가에 따라서 답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 발표를 하셨으니 그 여론조사의 조사 개요하고 질문하고 이런 부분들을 동료 위원들에게도 같이 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천하람 위원님, 자료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넣어 주시면……

○위원장 진성준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원 위원 그만하지요. 같은 주제로 10분을 쓰시게 하는 거잖아요.

○천하람 위원 우선……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지요.

○김병주 위원 그냥 마이크 없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박선원 위원 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진성준 이 문제는 천준호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천하람 위원께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느냐……

○천준호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께 드린 겁니다. 천하람 위원께 드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진성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천하람 위원께 그럴 수 있느냐고 다시 여쭙 겁니다.

○박선원 위원 아니, 같은 주제로 무슨 10분씩을 해요.

○위원장 진성준 제가 유의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예, 짧게.

○김병주 위원 그냥 마이크 없이 하면 되지요, 이것은.

○천하람 위원 그런데 직접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진성준 짧게 해 주십시오.

○천하람 위원 말씀드리면 우선 제 질의에 이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부득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만약에 장관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병적기록부 공개하겠다고 그랬다면 제가 굳이 의사진행발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를 안 보이셨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이 필요하더라는 것을 위원장님께 또 동료 위원님들께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부분은 언론에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당의 개혁연구원에서 조사를 이미 다 했고요. 조사해서 실제로 8월 6일에 조사 개요라든지 여론조사 문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 SNS는 물론이고 여러 언론, 저희 당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직접 확인하셔도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 주시면 제가 직접 조사 개요나 보고서 등을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참여를 대폭 축소를 지시했지요. 이것은 대통령님의 8·15 경축사에서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고 하는 말씀, 어떻게든지 남북의 군사 긴장을 완화시키고 휴전체제·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공동의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좋은 의사 표시가 북측으로부터 동일한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IS 코리아 체어 빅터 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이러한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놓고 김정은을 유인하기 위한 첫 구체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진행 중인 훈련을 중단시켰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효과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미군의 증원 계획에 급작스러운 변동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한미연합훈련이 유사시에 전쟁할 수 있는 체제를 확인하고 우리의 전시 대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시에 작전을 실제로 지휘하는 훈련과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앞으로, 이란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대만에서의 어떤 군사 충돌이라든지 이런 게 나면 미군과 일본군은 언제든지 바로 더 중요한 남중국해 전선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복합 위기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점에 비춰 볼 때 반드시 전시 작전통제권은 신속히 전환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공식적으로 대통령 간에 합의된 것은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합의를 했고 그때는 3년 내에 이전하자, 전환시켜 주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에 양국 정상에 첫 사인을 할 때는 3년 내에 전환을 하기로 했는데 2007년 3월 달에 김장수 장관이 가서 그것을 3년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6년 합의하고 2009년 전환하기로 하던 게 2012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3년에서 6년이니까 거의 배로 연장됐고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리처드 롤리스 당시 부차관보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한국 혼자 싸우는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미국은 더 넓은 세계의 안보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전장에서 일차적인 전쟁의 책임은 한국이 져야 된다’라고 해서 전작권 추진을 위해서 수도 없이 한미 간에 공동 노력을 했고 우리의 독자적인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것이 2006년을 기준으로 하면 언 20년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절대적 수치로 봐도 그때 국방비와 현재의 국방비를 보면 적어도 2배 반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C 다음 FMC가 있어야 되고 FMC 다음에는 또 뭐를 해야 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장관님을 대신해서 정책 실장이 보고한 것에 의하면 사령부 2개를 추가로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금년에 구성군사령부 하나가 되고 28년도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령 일부 국방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브리징 케이퍼빌리티(bridging capability)로 미국이 채워 줄 테니까 예정대로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시간을 끌고 그 시간을 끄는 것을 부추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나라의 안보를 매우 위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을 언제 할 겁니까? 날마다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체제를 갖추면서 미군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안보를 지키겠다고 하는 파이트 투나잇이 아니라 파이트 라잇 나우(fight right now), 지금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이러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확실한 장관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지난 20여 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전작권 ‘회수’에 대해서 절차와 단계 또 일관적·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안규백 장관님, 전시작전권 이전이라고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트랜지션(transition) 용어로 쓰는데 리커버리(recovery), ‘회수’라고 써야지 왜 이걸 트랜지션이라고 쓰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한미가 당초에 그 용어를 아마 합의를 봤던 것 같습니다.

○송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용어를 합의했는데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 아니, 우리 전시 작전은 우리 국가의 주권인데.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방부에서는 ‘회수’로 쓰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리커버리로 나는 바뀌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회수’로 쓰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송영길 위원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용어가 철학을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맞습니다. 그래서 ‘회수’로 쓰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리고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14일 날 서한을 통해 유엔사령관한테 지휘권을 양도했다는데 이 중요한 국가주권을 국회의 동의 없이 서한으로 이양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논란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리고 우리가 AI에다 물어봐도, 제미나이나 챗GPT에 물어보더라도 전 세계에 자신의 전시작전권을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전한 나라가 있냐고 물어보면 단 하나도 없다고 나옵니다. 그거 보셨어요? 제미나이나 챗GPT 한번 해 봤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송영길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국방부 직원들 지금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송영길 위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그 트위터 보셨지요, ‘X’에 나온 거?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송영길 위원 미국에 위협적이지도 않고 미국을 존중하는 나라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미합동훈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미국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송영길 위원 합참의장과 공군참모총장님 좀 나와 보실래요?

합참차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공군참모총장한테 물어볼게요.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전력으로 북한 군력과 대비해서 자주국방할 자신 있습니까?

○합동참모차장 권대원 예, 현재 한미연합 방위 태세하에서 대비 태세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아니, 한미연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체 병력과 우리의 군사력으로 북한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합동참모차장 권대원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을 대비해서 20년 동안 한국군 단독 작전, 전작권 전환을 포함해서 한국군의 역량을 많이 상당한 수준으로 격상시켰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

○합동참모차장 권대원 예.

○송영길 위원 물론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핵이야 우리가 한미합동을 통해서 확장 저지력으로 통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차장 권대원 예.

○송영길 위원 재래식 병력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합동참모차장 권대원 예.

○송영길 위원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지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차장 권대원 예, 군인들은 충분히 자신감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공군참모총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북한 전투비행기 한 500대로 평가됩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전술기나 비전술기나에 따라 다르지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송영길 위원 대략 그런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전투비행기가 전투 능력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전투 비행 시간이 연 한 150시간 이상은 돼야 되지요? 우리나라 전투 공군 평균 얼마 비행하고 있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수준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연 한 150시간 정도는 하고 있지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NATO는 한 200시간, 미국이 한때 200시간까지도 하고 있지만 최저 120시간, 한 150시간 정도는 전투 능력이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저희도 타국 이상으로 충분히 훈련하기도……

○송영길 위원 북한 전투비행사들이 몇 시간 운행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얼마나 됩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됩니다. 상당히 적은 시간을 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12시간에서 30시간 사이입니다. 알고 있지요? 이미 그거는 미국 언론에

도 다 보도된 내용이에요. 항공유 자체가 안 됩니다. 개네들 유엔제재 결의에 따라, 항공유가 얼마나 고압유인데. 그게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통제가 돼서 비행을……레이더 보면 다 알 거 아닙니까, 비행기가 뜨는 시간을 전부 다. 다 파악이 되고 있지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1년에 20시간에서…… 모의 전투기로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무슨, 초등학생들이 비행기 놀이하듯이 하는 그런 전투 훈련과 우리나라 F-35를 도입한 공군력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최대의 훈련을 통해서 대한민국 방어를 하고 특히나 최단 시간 내 최소 피해를 위해서 저희가……

○송영길 위원 만약에 공중전이 벌어진다면 청주공항에 F-35 뜨면 미국 이런 거 전부 다 추풍낙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상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자신감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미군 없으면 곧 무너질 것 같은 이러한 사고를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국군은 자기 나라를 자기 힘으로 지킨다는 기본 자세가 있어야지요. 물론 동맹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하지만 그런 정신적 무장이 필요하고 실제 우리가 세계 6대 군사력을 가지고 이것을 별별 편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겉핥하면 미군 감축하겠다 이런 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응원에 더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장관님, 우선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17쪽 중간 보시면 북한 신형 240mm, 600mm 방사포, 자주포, 전술미사일 등 접경지역의 배치 관련 도발 예상 표적 최신화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동안 수도권을 위협하는 거 아시다시피 170mm 자주포, 240mm 구형 방사포가 대표적이었는데 600mm 방사포, 자주포, 전술미사일까지도 DMZ 인근 접경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 말씀이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이 자주포는 170mm 자주포가 아니고 신형 155mm 자주포를 얘기하는 건가요, 장관님?

제가 한 답변도 합참차장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자주포가 155mm 신형 자주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170mm 구형 곡사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합동참모차장 권대원**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 대한 장사정포 위협은 두 가지였는데 240mm 방사포도 유도로켓을 장착해 정확도가 엄청 높아졌고 600mm 방사포도 그렇고 전술미사일도 그렇고. 그동안의 장사정포 위협과는 다른 차원의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높아졌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불모지 작업을 통해서 일련의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에 대한 대응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제가 왜 여쭙보냐 하면 그동안 군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북한 신형 무기들의 전방 배치를 확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쭙보는 것이고요.

합참차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 국경선 요새와 관련해서 장벽이라든지 지뢰 지대라든지 이런 거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155마일, 250km 휴전선 중에 어느 정도 길이로 설치가 돼 있습니까, 일부에서 70km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합동참모차장 권대원** 250km 중에 불모지는 약 90% 정도가 완성이 됐다고 보고.

○**유용원 위원** 250km 중에 90%?

○**합동참모차장 권대원**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지뢰 지대하고 철조망은 30~60%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성일중 위원장님에 이어서 북한 핵무기 숫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핵무기 숫자를 50에서 한 60개 정도 이상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 안에 구체적인 숫자를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 180~120개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숫자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숫자보다 좀 많다고 판단하신다고 봐도 되겠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까 제가 북한 핵무기 숫자를 보통 우리가 80~120개 정도로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국내의 연구기관에 대한, 민간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의 내용인 것이고요. 우리 군 당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유용원 위원**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내의 연구기관에서 했던 말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용원 위원** 많다 적다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기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동료·선배 위원님들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UFS 훈련이 대폭 축소됐지만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 FOC에는 문제가 없다, 이미 됐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FOC 평가는 이게 1차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미 평가를 완료한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반격 작전까지 포함된 훈련을 제대로 마쳐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군사 지식이 좀 부족한지 몰라도 홍길동의 축지법 같은 거를 군에서 검증 관련해서 개발하신 게 있나, 이렇게 단기간 내에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새로 발견하신 게 있나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SCM에서 X년도를 결정하고 그 건의를 FOC 검증을 위해서 몇 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일부 기간 동안에 그게 포함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용원 위원 1분만 더 주실 수……

○위원장 진성준 그러시지요.

○유용원 위원 그러면 SCM이 11월에 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11월초에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11월에 SCM 할 때 목표연도를, FOC 평가 검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결정하는 게 기본 국방부 계획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양국 장관이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겁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SCM 전에 추가적으로 FOC라든지 전작권 전환 검증과 관련된 어떤 훈련이라든지 평가 작업을 추가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일련의 선상에서 KIDD, MCM, 이어서 계속 평가와 그에 대한 숙의를 합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FOC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끝났다, 다 됐다는 거는 공식 입장은 아닌 거네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일부 기관에 한미가 공동 평가에 대해서 완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료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계속 이어져 가야 되겠지요.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제가 국방위원인지 잘 몰라서 그런지 상견례를 하신 분들이 없지요. 그렇지요? 오해가 없길 바라고 제가 까칠한 질문을 하더라도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각 당에서도 불안하시면 제가 현재 위치가 리베로니까요 저를 스카우트하시면 됩니다.

(「저희 당으로 오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가고 싶은 당은 있어요.

먼저 병무청장님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특례보충역이 현재 한 몇 종류에 몇 명 정도 돼요?

○병무청장 홍소영 8종에서 9종……

○위원장 진성준 마이크 쓰십시오.

○병무청장 홍소영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1만 명 정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제가 국방위원을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때서부터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존경하는 국방부장관님 너무 잘 아실 테고.

계속 문제가 되면서 지금 보면 고아, 귀화자, 북한이탈주민 병역감면 제도까지 개선하고 검토하는 마당인데 이 특례보충역이 문제가 돼서 특례보충역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때 보고한다고 그런 게 한 10년 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특례보충역을 계속 유지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개선을 하실 겁니까?

○**병무청장 홍소영** 특례보충역도 개선을 할 겁니다. 지금 병역자원이 감소……

○**김병기 위원** 아니, ‘할 겁니다’가 아니고요. 10년 전서부터 그 얘기는 했다니까요.

○**병무청장 홍소영** 2019년부터 특례보충역을 감축하는 방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실제로……

○**김병기 위원** 특례보충역이 필요합니까?

○**병무청장 홍소영** 예, 그렇습니다. 특례보충역이 운영되는 곳은 공공 분야와 그다음에 민간 분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간 분야에서는……

○**김병기 위원** 아니, 제가 말한 특례보충역은 예를 들면 국위선양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이런 분들을 전부 다 특례보충역으로 넣고 있는데 그 범위가 지금도 필요하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위원님,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랑 저희가 특례보충역, 예술요원과 체육요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아니, 10년 전부터 검토하셨다니까요. 10년 전에 병무청장님이 병무청에 계셨을 거예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위원님 그 부분이……

○**김병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 국감 때 이 질문을 똑같이 하겠습니다. 국감 때 준비를 잘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병기 위원** 아니요. 시간을 별로 안 줄 것 같아 가지고……

○**병무청장 홍소영** 알겠습니다. 국감 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국군사관학교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찬반을 여쭙보는 게 아니고요. 이런 큰 건일수록 저는 굉장히 검토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군사관학교의 창설에 전향적입니다. 그것부터 전제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점이 저는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게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육해공군 통합교육을 시키면 사실은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군이 그럴 리 없다 그런 것은 고려사항이 되지를 않습니다.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태국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태국 같은 경우에는 육해공군, 경찰까지 예비사관학교를 운영하잖아요, 2학년까지. 그리

고 3학년 때 육해공군, 경찰을 나누거든요. 사실 이게 기수 중심의 강력한 파벌이 되고요. 그리고 파벌 세력이 이후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아주 결정적으로 힘을 작용합니다. 이 힘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관학교를 결국적으로 통합 운영하게 되면…… 지금처럼 평화로운 시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50년, 100년 후에 어떤 세상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아니면 나라가 불안해졌을 때, 이럴 때 강력한 체제를, 파벌을 만들지 않고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 대한민국과 태국을 수평적 선상에 놓고 평가하기에는 우리가……

○김병기 위원 태국이라는 나라를 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3군을 결국 통합 선발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병기 위원 통합 선발하게 되면 결국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육해공군이 같은 데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3·4학년 때 따로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훈련을 같이 받게 됩니다. 체력훈련 같은 것, 전술훈련 같이 받게 되는데……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제가 다른 부서를 예를 들어서 좀 뭉칩니다만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굉장히 세게 받아요. 그런데 통합훈련을 받으면 결국은 분야를 나누더라도 동기 개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지요.

○김병기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동기 개념이 생긴다고요. 그게 강력한 파벌이 된다고요. 육해공군이 강력한 파벌을 형성했을 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실제 없는 것 같으니 거기에 대한 검토도 신중하게 하셔서 이런 말씀을, 지금 답변을 제가 구하는 건 아니고요.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런 점도 고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장관님, 조금 전에 천하람 위원께서 병적기록표를 위원회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이미 제가……

○임종득 위원 짧게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청문회를 통해서……

○임종득 위원 안 하신다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청문회를 통해서 다 소명했던 사항입니다.

○임종득 위원 알았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다른 부처 장관하고는 다릅니다. 군의 통수권·지휘권을 가진 최고 지휘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한 국방부장관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병적기록을 하지 못하겠다는 부분은 군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군인들의 자발적인 충성을 받는 데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공개할 것 공개하고 리

더십을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는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 업무보고하시면서 두 번째 페이지에 ‘전작권 전환’, ‘전작권 회복’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것도 한 페이지에, 문서에 나와 있는 말도 아니고. 이것은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참모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명칭이 뭘니까? 한미 간에 합의한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뭐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그것은요……

○임종득 위원 Control이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한미연합에서 회수와 전환을 같이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한미 간에 회복, 회수 이것을 같이 쓴다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그것 아닙니다. 호도하지 마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미국이 동의를 했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협상해야 될 당사자예요, 장관님은.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전환하고 회복을 같이……

○임종득 위원 정치적으로 회복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연합사 체제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회복과 전환을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위원께서 아까 ‘한미동맹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왜냐면……

○임종득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어느 때보다도 미 전쟁부와……

○임종득 위원 스스로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게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관이?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경제 분야는 빼놓고라도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임종득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말 자체가 길어지는 것 자체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지금이 70년 한미동맹의 역사상 가장 견고한 때라고 믿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위원님, 지금 현안이 있을 때마다 연합사령관과 또 헤그세스와 수시로 공조도 하고 만나고 이런 것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임종득 위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참모들이 있고, 저도 군생활을 38년 했습니다. 미국 관련된 한미동맹 일을 계속해 왔어요. 지금과 같이 소통 안 되는 적

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장관이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글썽요……

○임종득 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훈련 중에 있는 UFS 훈련을 축소한다고 발표했고 받아들였어요. 지금까지 한미연합훈련 중에 훈련을 축소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미 측에서 했기 때문에……

○임종득 위원 그 자체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미국이 요구하니까 그냥 오케이하고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미 군사당국이 협의한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한미 정부 당국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미 행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잘 몰랐고요.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래서 그 메시지가, SNS가 나온 이후에 바로 미 측과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그 팩트를 얘기하시면서 지금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장관이 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미 행정부도 전혀 아는 사람이 없었고……

○임종득 위원 아니, 그걸 인정하자 이거예요. 인정하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지금 70년 한미동맹 중에 가장 견고한 때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장관이.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연후에 후속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한미가 그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다 진행이 잘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임종득 위원 그리고 지금 FOC 다 끝났다고 이야기했지요? 원래 한미연합훈련을 2주간 계획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갑자기 훈련 중에 1주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 FOC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17·18일 이틀밖에 안 하고 그 발표를 트럼프가 했고 사실상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했습니까? 뭐를 했지요? 뭘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대화력전하고 두 가지를 했는데요. 그것은 17일, 18일 날 했고 이미 우리가 탱고에서 험프리로 가 있더라도 C4I 체계가 다 굉장히 발달, 이원화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임종득 위원 장관님은 아실 겁니다. 전시 전작권의 전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미래연합사령관의 전시 지휘 능력이에요. 참모들과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하는 것은 연합사령관이 지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합참의장이 연합사 참모들을 지휘하는 경험들을 최종적으로 FOC 통해서 검증해 봐야 돼요. 그게 아마 대부분 보면 통상 전반기·후반기, 1·2부를 통해 가지고 한번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 없이 지금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FOC가 뭐가 다 됐다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일부에 포함됐기 때문에……

○임종득 위원 아니, 미래연합사령관이, 합참의장이 지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검증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FOC가 다 됐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검증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시에 미래연합사령관이 연합 참모들을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컨트롤하면서 훈련할 수 있느냐, 실제로 전시에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당시에 한미가 함께 일부 FOC 평가 2개 항목에 대해서 긴밀하게 평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을 하셔야지요.
나중에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의견인데요. 한미동맹 굳건하지요?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은 같이 이렇게 병행되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국방부장관 안규백 한미동맹은 그 언제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고 바퀴의 양 축과 같고 동전의 양면 같아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황명선 위원 결국은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대립관계가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서 분명히 몇 가지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밖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꾸로 축소를 요구했다라는 의견도 국민들께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언론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진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 국방부장관한테 지시해 가지고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황명선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축소된 만큼 대비태세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 우리 국방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축소돼서 그것이 생략된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야외 실기동훈련을 포함해서 140여 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59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균질하게 하는 것이고요. 물론 숫자로 보면 작년보다 금년이 좀 줄어든 것이……

○**황명선 위원** 그래서 축소된 만큼 우려할 부분이 없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후에도 계속합니다.

○**황명선 위원** 특히 또 이후에 전작권 회복과 관련해서……

○**국방부장관 안규백** UFS 기간 동안만 하는 게 아니고 UFS 끝난 다음에도 계속 연습과 훈련을 합니다.

○**황명선 위원** 평가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한미가 계속 전작권에 대한 평가, 그렇지요? 이 우려도 분명히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황명선 위원** 또 하나, 한미연합훈련이 이렇게 축소가 됐을 때 많은 국민들의 우려는 그러면 전작권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주국방의 역량과 능력이 얼마나 될까라는 이 퀘스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 기회를 우리가 굉장히 잘 살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감시 능력, 정찰 능력, 지휘통제 능력, 미사일방어 능력, 정밀타격 그리고 여러 가지 합동작전 능력 이러한 구체적 확충 계획들이 훈련이 축소된 이 시기에도 철저하게 우리가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자주국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군의 무형의 정신 무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우리 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산 수출 4위입니다. 국방력 세계 5위입니다. 경제력 10위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GDP의 1.4배 되는 국방비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어느 나라보다도 자주국방 능력과 태세가 갖춰졌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면서 자주국방 안 하면 어느 나라가 자주국방 할 수 있겠습니까?

○**황명선 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축소 문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대화의 관계 저는 이런 쪽이라고 봐집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북미 관계 개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연합훈련은 글자 그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입니다. 연합원 둘 이상 하는 것이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생략된 게 아니고 이후에 연중 균질하게 균등하게 훈련과 연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황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군참모총장님, 해병대사령관님 잠깐 앞으로 같이.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각 군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병대에 대한, 준 4군 체제에 대한 국군조직법 개정안들이 지금 현재 발의가 됐고 우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번에 합의가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해군의 역할이, 총장님, 주임무가 뭐니까?

○**해군참모총장 김경률** 해양작전이고 지금 상륙작전 같이 포함입니다.

○**황명선 위원** 주임무.

○해군참모총장 김경률 주임무는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양작전입니다.

○황명선 위원 그래서 준 4군 체제의 의미가 저는 해군은 과거 국군조직법 만들 때 의견을 들어 보니까 과거 상륙작전과 해양작전이라고 이렇게 담았는데 그동안 쪽 논의를 해 보니 해양작전이 주임무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명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하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작전 맞지요?

○해군참모총장 김경률 예, 그렇습니다. 해군의 입장에서 보면 상륙작전도 해양작전의 일부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1분 더 드리시지요.

○황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해병대사령관님 나오세요.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입니다.

○황명선 위원 해병대의 주임무가 뭡니까?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지금……

○황명선 위원 그러면 해군은 상륙작전이 주임무입니까?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해병대는 지금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국군조직법을 건의드린 것은 상륙작전 외에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신속대응작전과 주요 전략도서에 대한 방위를 저희들은 지금 추진하고자 건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황명선 위원 그래서 그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 분명히 해 달라는 요구지요?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게 결국 준 4군 체제에 대한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예.

○황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장관님, 국직부대와 관련돼서 오늘 보니까 국직부대가 지금 현재 29개인이 있더라고요. 우리 국가 대한민국 차원에서 국직부대가 서울·수도권에 기본적으로 거의 80% 가까이 있더라고요. 군 전력체계가 필요한 곳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돼서 국방 클러스터의 도시 이렇게 해서 더 전력체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또 한 가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으로 국방혁신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저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기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가균형발전과 또 향후에 국방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또 오후 3시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회의는 본회의가 산회되는 대로 곧바로 속개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회의에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장님, 질의하기에 앞서요, 조금 전에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어 가지고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진성준 예, 그렇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간사위원님들 간의 합의입니다.

국방부장관 먼저 보고하시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 군은 8월 20일, 조금 전 17시경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사 전부터 징후를 식별해서 대비태세를 갖추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오늘 오전에 유용원 위원님께서 언급했던 600mm 방사포로 생각되며 그린파인 레이더로부터 발사부터 비행 또 소실 단계까지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언급했던 600mm 방사포는 전방에 배치 가능성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년 7월 31일부로 방첩사가 해체됐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선영 위원 방첩사 해체되기 전에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에서 방첩사 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가 2026년 1월에, 금년 1월에 방첩사 해체를 권고하면서 안보수사와 방첩정보를 분리시켜 각각 따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선영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마 여러 가지 각 기능별로, 임무와 기능별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현재 방첩사가 안보수사 기능이, 방첩사가 3개의 기능으로 나뉘었습니다. 방첩본부가 신설되고 보안지원단이 신설되고 안보수사대가 하던 일은 조사본

부로 편입됐는데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기존의 국방부 조사본부는 어떤 기관이었는지는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선영 위원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수사를 하던 사법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수사대가 조사본부에 편입되면서 이 국방부 조사본부가 정보수사기관으로 편입됐습니다.

정보수사기관이라는 건 어떤 성격을 말하나 하면 기존의 방첩사는 10대 기능이 있어 가지고 정보수집을 전제로 해서 근원 발굴을 통해서 하던 수사를, 10대 수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PPT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정원법이 명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을 통해서 정보 수사기관만, 명시되어 있는 기관만 지금 국정원의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기존에 방첩사가 안보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쓰려다 보니까 긴급하게 이번에 7월 28일 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원래 없던 정보수사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을 급하게 3일 전에 개정한 겁니다. 이 조사본부를 포함한 이유는 방첩사가 쓰던 막대한 예산을 지금 조사본부가 가져가려고 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권고하면서 안보와 방첩수사를 분리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민관군 TF에서 정보와 수사 기능을 통합했을 경우에는 막강한 권한이 단일 기관에 집중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찰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여러 가지, 한 기관에 막강한 권력과 정보력이 있으면 그게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 이 정부에서 기존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갖고 있던 기능에 방첩사가 문제 있다고 하는 정보수집을 포함한 그런 기능까지 포함해서 조사본부에 이 기능을 줌으로써 이 조사본부가 쥐고 있는 막대한 칼자루를 앞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굉장히 염려됩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래서 국방부에 3개 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내국을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정보위원회, 국정원을 소관하는 상임위도 있지만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는 과거에 우리가 방첩사를 염려했던 보안·안보 기능과 정보 기능과 수사 기능을 다 가진 그러한 기관으로 출범했다는 것을 다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금년도 미국과의 정보 공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미공개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에, 오늘 좀 전에 기사가 났는데 국방부와 국정원 관계자가 방미를 추진했으나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서 미국에 가지도 못했다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제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어쨌든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런 게 기사가 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는 425 위성 아실 겁니다. 총 5개를 갖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SAR 위성 4기와 EO/IR 1기 갖고 있는데요. 이 재방문 주기가 2시간 단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북한의 신형 600mm 방사포는 발사속도가 2019년에는 30초였는데요 2020년 20초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발사 차량 TEL이 성능 개량을 통해서 시차를 거의 두지 않고 동시에 연속해서 발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도달했다는 것 아마 정보 보고를 통해서 아실 텐데, 문제는 이런 신형 600mm 방사포 화산-31이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5사업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아무리 관찰하려고 하더라도 저희는 2시간 단위로밖에 관찰할 수 없고 또 북한이 신형 방사포에는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425 위성만으로는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매우 제한되고 북한이 제공하는 정보가 없이는 아직은 한반도의 위협을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 미국과 협의 없이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외부적으로 수사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전작권 전환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한미동맹, 특히 대북정보 공유 중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425사업과 또 상업용 위성으로 시간주기를 지금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 위성 사업이 26년부터 27년까지 16기, 그다음에 또 44기가 곧 전력화되면 방문주기가 약 25분에서 30분 정도로 줄어들 겠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한미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오전에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이 공고하더라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론을 여러 가지 제기를 하던데 본 위원은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이 공고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방산 분야 또 군사기술 분야, 산업 분야까지 동맹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병주 위원 지금 미군 함정을 우리가 정비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파악한 걸 보니까 한 10건 정도 되더라고요. 한화오션에서 6건, HD현대중공업에서 3건, HJ중공업에서 1건 이렇게 미국의 함정들을 정비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미국 함정을 다른 나라가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직 제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지요? 실제 본 함정을 다른 나라가 정비해 달라는 건 그만큼 신뢰

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함정과 전투기도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한화가 큰 성과를 냈는데, K-9 자주포 그것을 한 6문 가까이 공급 계약을 해서 시제품으로 해서 실험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 실험한 연후에 굉장히 많은 숫자를 구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요. 실제 함정 또 구축함 2척을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한화오션이나 우리 조선 쪽으로 수주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더 많은 수주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미가 완전한 신뢰 없이는 실제 미군의 군함을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는 사례들은 없어요. 실제 그만큼 우리 한미동맹이 공고하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미 전쟁부와 같이 이렇게 회담을, 회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연합사령관과 함께 여러 가지 즉각적인 대응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주 위원 역대 정부가 20년 전부터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핵추진잠수함을 요구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핵추진잠수함을 미국이 이렇게 허락을 해서 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이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강할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은 저는 공고하다고 보고 정치적인 거나 정책적인 이견은 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조율해서 합의해 가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한미동맹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민의힘 모 위원이 질의할 때 보니까 명확히 장관님이 답변을 좀 못 하시던데 아니, 안 하고 언급이 안 돼서 이걸 혼란이 갈까 봐 다시 재질의할게요.

전작권 전환했을 때 지금 연합사는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연합사가 미래연합사로 바뀌면서 사성장군만 한국군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김병주 위원 그렇지요. 그때 이제 사령관은 현재 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하고 연합사령관 미군 사령관은 부사령관을 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세계 어디에도 없는 6개 구성군사령부가 구성이 돼서 더 촘촘하게 한미동맹이 이루어집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합참의장이 미래한미연합사령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지요. 합참의장이 아니고요. 연합사 부사령관이 하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요. 연합사부사령관이 사령관을 하는 거고 이번에 연합훈련 때도 그걸 연습하는 거지요, 사실은.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아까 그것은 합참의장으로 표현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길래 혹시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재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질의응답을 긴급하게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미스매칭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윤석열 정권 때 안규백 장관하고 저와 근무를 같이 했던 사람 블랙리스트를 정권 초기부터 만들어서 보니까 긴급에 불이익을 줬고 또 여인형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방첩사도 만들어서 계속 관리했던데 저와 장관님하고 가가 뵈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 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한 거 이것 알고 있지요, JTBC에 최근에 보도된 거?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그때 불이익됐던 인원은 제가 보니까 저와 관련된 인원은 전역을 많이 했던데 이것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진성준** 그러시지요.

1분 마무리해 주세요.

○**김병주 위원** 진짜로 이거는 문제가 많지요. 저는 윤석열 정권 때 저와 같이 근무했던 인원들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일부러 전화도 못 하고 했는데 보니까 정권 초기에 인수위 때 벌써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제가 연합미사일사령관 할 때 참모장은 투스타가 됐는데 이 인원도 그 명단에 있는데 전역이 됐습니다. 훌륭한 장교인데 더 이상 진급이 안 되고 또 비서실장이 했던 인원들 모든 걸 이렇게 관리해서 불이익을 주는 윤정권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국방부 자체 내에서 블랙리스트 됐던 명단을 조사해서 실제 현역에 있는 인원들은 더 이상 불이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해서 발표를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런 게 가능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수사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요.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 장관님, 국가 운영의, 국정 운영의 가장 철학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오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일단 대통령중심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렇지요. 장관님 생각보다도 대통령 생각에 더 우선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일종 위원** 물론이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중국에 사관학교가 다 통합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중국의 사관학교는 각 군종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러시아는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공산국가에 대해서는 잘 관심이 없어 가지고……

○성일종 위원 그런데 관심이 없는데 대통령 업무보고 할 때 그때 러시아·중국 다 통합돼 있습니다라고 왜 보고하셨어요? 사관학교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많은 국가가 통합된 장교 양성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등도 독립된 사관학교가 없고 장교를 1년 과정으로 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8월 5일 날 장관께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에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들이 그런 장교양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성일종 위원 여기 러시아하고 중국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셨다니까. 이스라엘 얘기는 아예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대통령한테 허위보고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총장들이나 누가 장관님한테 허위보고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육사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했기 때문에 육사는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육사에 대한 원칙을 대통령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장관께서 얘기하시는 합동성이나 또 변화하는 과학 환경에 맞춰서 정예군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하고 이게 틀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게 틀리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니, 장관님께서는 원래 이게 미래 전쟁에 대비하고 합동성, 3군사관학교 통합하는 것은 합동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그 말은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랬는데 대통령께서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앞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 평가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8월 5일 날 이 업무보고 할 때. 그런데 장관께서는 러시아, 중국도 사관학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장교 1~2년 과정으로 양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이것도 허위보고다. 그러면 사관학교를 지금 통폐합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장관께서 얘기하시는 합동성이나 이런 걸로 다 보자고 하자고요. 그러면 육군 사관학교 1년에 졸업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실 수도 있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330명 입학 정원의 약……

○성일종 위원 한 260~270명 정도 되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공사나 해사는 좀 더 적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해사는 170명, 공사는 210명 정도 되는데……

○성일종 위원 그러면 ROTC는 몇 명입니까? 1년 나오는 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성일종 위원 2700명 나옵니다. 학사는 몇 명 나오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ROTC가 약 3000명 나오고 학사가 한 1000여 명 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초급장교에서 봤었을 때 초급장교 과정인데 여기도 다 함께 합쳐야지요, 합동성을 강화하려면. 왜 3군사관학교 그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또 변화하는 군의 여러 상황 변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합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숫자가 월등히 많은 10~20배가 더 많은 ROTC나 학사도 합쳐야지 그래야 합동성이 제대로 장관의 철학대로 갈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일차적으로……

○성일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군사관학교 합치는 거를 다른 여러 요인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1분만 더 주시지요.

장관님 이것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세 번씩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걸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법사위에서도 어제 참여하셨지만 그러면 서울법대 없애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3개의 우리 간성을 만드는 이 핵심의 축을, 기본 과정을 만드는 건데 교육을 하는 건데 합동성이라고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ROTC 다 합쳐라 이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일차적으로 3군사관학교를 통합한 연유에 각 군의 각 간호사관학교 또 첨단과학사관학교 이런 분야들을 아마 이차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개혁에 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일종 위원 장관님 그거 아주 적응 문제예요. 제일 큰 게 ROTC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사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에 맞지 않아서 여기 육군 참모총장도 나와 계시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먼 미래를 위해서……

○국방부장관 안규백 군의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코스와 일반적으로 의무복무와 또 단기 장교의 양성 코스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 지금 ROTC에서 장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사 숫자보다도 많 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처음 입학할 때 군의 엘리트 코스를 밟는 사관학교 생도와 학군과 학사, 다른 장교의 코스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 그것 아주 마이너한 문제입니다. 제가 질의를 마무리할 텐데 그건 정말 마이너한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삼성장군, 사성장군 나와 있는 ROTC 학사 장성들을 뭐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 위원** 고양시 김성희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국군 사관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국가안보가 중요하고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 보니까 복합 전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우주하고 사이버까지 포함하는 소위 말하는 올 도메인, 전 영역 통합 작전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을 텐데요. 이란 전쟁에서 가동됐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공중의 전투기, 해상 이지스 구축함, 지상의 방공포대에다가 우주의 조기경보 위성까지 포함해서 군종의 경계, 지금 50년 전에 6·25 때 싸우던 식으로 싸울 수는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실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의 합동성, 장관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합동성은 각 군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지금은 각 군마다 약간 칸막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지금 세종연구소에서 발행했던 국가전략에서 한번 봤더니요—22년 등재되어 있던 논문입니다—5단계로 봤을 때 한국군은 2단계 협조에 그치고 있고 미군은 5단계 교차 영역 시너지까지 지금 넘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군은 왜 그러냐하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실전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현행 군 교육 및 장교 양성체계하에서 합동성에 대한 교육이 지금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래전에 대비한 연합합동작전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할 때부터 합동성 훈련 좀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강화할 계획이신지 좀 여쭙보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래서 이번에 3군사관학교를 통합을 하면서 합동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키려고 그러합니다. 예컨대 탁구로 비교를 하면 단식에서 전문성이 길러져야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동성이 저는 발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영역작전, 군종 간의 경계를 허무는 합동성이 발휘되는 3군사관학교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희 위원** 이제 방송을 보시는, 이 회의를 보시는 국민들은 특히나 더 모르실 것 같은데 현재에서는 영관급 그러니까 소령이나 대령이 다른 군하고 섞여서 훈련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되지 그 전까지는 육군은 육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완전히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 사용하는 언어조차도 다르다라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조기에 앞당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찰드론이 적을 포착하고 클라우드 상황인식 체계에서 공유가 되면 타격, 포착 지점까지 다 잡아 갖고—소위 말하는 킬체인이라고 하지요—이런 현대전에서 AI 첨단 과학기술을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국방부에서 군인력의 첨단과학기술 역량 육성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국군사관학교에서 이런 건 좀 감지를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첨단 사관학교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 또 앞으로는 학령인구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2040년이 되면 현재의 45% 수준에 머물렀다. 거기다가 이제 2043년이 되면 11만 8000명으로 확 줄어듭니다.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게 지금 중복 투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자꾸 주는데 중복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사관학교의 경쟁력 저하의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도 있고요.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면 이 중복 투자가 좀 줄어들도록 설계가 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먼저 기본적인 설계를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관학교의 1·2학년 공통 과목들의 약 80%가 중복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첨단 사관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첩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희 위원** 지금 보니까 박사들이 육사는 75%, 해사는 77%, 공사는 65%의 교수들이 학위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석사들이더라고요. 교육의 질을 올리고 이런 문제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한 준비도 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기본적인 교수진 설계부터 군무원 교수 또 군 출신 교수 이게 거의 칠팔십 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교수 수준을 국립대학교 교수 수준으로 올리면서 그 인원들은 50% 이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지금 더 강한 군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장교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택할지에 대한 고민의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장관님과 국방부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잘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7시 10분 전이니깐요, 앞으로 두 분 더 질의를 진행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8시 반에 다시 속개해서 질의를 이어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두 분 더 하신다고 그러면 유영하 위원님과 민홍철 위원님 이 두 분까지인데, 그 앞에서 딱 끊어진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공군 총장님, 이쪽으로 보이는 데로 앉아 주십시오.

시간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주세요.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8월 7일 날 군에서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에 대해서 한 3년 정도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총장님?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보고를 받은 적 없고 기사에 몇 개가 있는 걸 제가 확인한 적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기사만 확인했다?

그러면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 그 3년이라는 부분은 완전히

새로 지어서 옮기는 시간으로,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장관님 질의드릴 때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대해서 지금 작전성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한 적이 있냐 했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柳榮夏 위원 대통령께서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 이전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결정을 하셨을 텐데, 아마 그 초기 보고는 공군에서 올렸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되는데 그런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정상적으로 보고를 다 했습니다.

○柳榮夏 위원 작전성 검토보고를 한 적이 있냐고 여쭙습니다. 있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있어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柳榮夏 위원 보고서 내용 기억합니까, 지금?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柳榮夏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06전투비행대대가 지금 TA-50 블록2를 갖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게 2023년 재창설 됐을 텐데 이게 교관·조종사 양성이나 전투훈련, 유사 시 작전 투입 부대 아닙니까? 그래서 2026년 올해 겨우 전력화를 마무리한 부대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정상적으로 전력화 마치자마자 또 다른 기지로 옮겨 간다는 거지요. 이게 옮겨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옮겨 가지요, 206전투대대가?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위원님, 제가 시간을 멈추더라도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아니, 어디로 옮겨 가냐고 여쭙습니다. 그 정도 답변은 금방 하잖아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비행대대와 작전기지를 이 공개석상에서 보고드리기에는 좀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말하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사작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柳榮夏 위원 다 보도가 됐으니까 내가 여쭙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비문 갖고 얘기 하세요?

206대대가 군산 111대대와 서남권 KADIZ에 출격하는 부대는 맞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해당되는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柳榮夏 위원 자, 화면 좀 띄워 보세요.

KADIZ 서남쪽 끝점을 기준으로 하면 광주기지는 628km, 군산기지는 700km 떨어져 있습니다. TA-50이 서산에 배치되면 무려 150km 떨어진 780km입니다. 이것도 군사비밀이라고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저것 구글로 확인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행기가 어느 방향에서 떴을 때 거리가 나오지요. 그렇지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외국 군용기의 진입 위치에 따라서 대응이 늦어진다면 그 결과가 그렇

게 단순한 것 아닌 건 총장님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 도착 시간과 제공시간, 연료 소모, 후속 출격 부담까지 광주에서 출격했을 때랑 서산 출격했을 때 같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일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일부 차이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총장 몰라서 하시는 소리예요, 지금?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알고 있고 그에 대한 판단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장관께서 국방위원으로 계실 때 KADIZ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장관이 되시고 나니까, 대통령께서 반도체클러스터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장관님 소신을 좀 굽히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군은요, 정치에 개입해서 정치 논리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셔도 군의 작전상 잘못되면 그걸 설득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게, 그게 군인 정신이에요.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설명을 들으면 마치 비행대대 3개만 옮기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것 아닌 것 총장님이 아실 겁니다. 이 전투비행단에 속한 게 항공작전전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비전대도 있고 기지방호전대도 있고 작전지원전대도 있고 그다음에 군사경찰, 보급·의무부대, 많은 부대가 있잖아요.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대들이 다 같이 옮길 텐데 189·216대대를 예천으로 보내고 206전투비행대대를 서산으로 보내면 정비인력은 어떻게 나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정비인력은?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해당되는 교육, 특성 그리고 기지를……

○柳榮夏 위원 아니, 정비인력을 어떻게 나눌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인력은 제가 해당되는 필수 요소에 맞춰서 인력을 배당했습니다.

○柳榮夏 위원 좋습니다.

군수물자와 지상 지원장비, 통신체계, 이 비행전단이 움직이면 그 지원 요소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지원조직까지 나누려면 새로운 시설을 구축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맞습니까?

몇 년 뒤에 무안기지가 완성돼요. 완성되면 예천과 서산에 돈을 들여서 마련한 시설을 두고 다시 무안으로 옮겨 가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임시 배치를 위해서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난 다음에 다시 대체 기지 이전에 또 돈을 쓴다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중복 투자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1분만 좀 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성준 예, 1분 더 하시지요.

○柳榮夏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선착공의 문제인데요. 지금 옮겨 가는 광주공항의 탄약창, 거기가 지금 비행안전구역 5구역에 속하는 건 총장 알고 계시지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몇 구역까지는 말씀드리기 제한되지만 해당이 됩니다.

○柳榮夏 위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것 PPT 띄웠잖아요, 지금 5구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보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군사기지는, 군사기지 보호법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은 제한표면 이상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 못 하게 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柳榮夏 위원 대형 반도체 팹을 건설하면 타워크레인 설치되는 것 알고 계세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柳榮夏 위원 반도체 팹 지상 높이가 얼마인 줄 알고 계세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100여m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대통령 말씀대로 하면 일부에서는 팹을 설치하기 위해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되고 일부에서는 항공기가 뜨고 내려요. 안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시뮬레이션 돌려 봤어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검토했습니다.

○柳榮夏 위원 검토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공사를 100여m 다 올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고도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의 공사는 허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전을 고려해서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柳榮夏 위원 총장, 지금 하신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책임지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위원장님, 시간 괜찮으시면.....

○柳榮夏 위원 답변 주세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허용해 주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그러시지요. 답변하십시오.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저도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다 검토했고 또 임시 배치가 일부 군사적 제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재정적 요소가 추가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 배치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적 가치를 따졌을 때 저는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한 결심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전략적 가치가 상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柳榮夏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오늘 방사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옛그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견인포, 자주포 사업 시제품 계약의 쾌거를 이뤘잖아요. 정말 대단한 우리 이재명 정부의, 방산 4대 강국으로 가는 정말 큰 대로를 이제 뚫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참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하는 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개선해야 될 게 많고 보충·보완해야 될 게 많다.

물론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 여러 가지 첨단기술 핵심전력 확보 및 획득제도 개선을 위해서 혁신 작업으로 국방반도체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국방첨단전력사업법의 제정 추진을 하겠다, 말씀은 참 좋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그동안에 국방위원을 하고 또 군 경험을 볼 때 방위산업을 국가 주도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정책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민간과 공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예.

○민홍철 위원 민·군 기술을 같이, 민간 기술을 군으로 또 겸용해 줘야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달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조달 계약법으로 이렇게 정부계약법을 주로 적용하고 있고 일반조건보다는 특수조건이 오히려 더 많은……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이런 제도 속에서는 과연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방산 강국 또 수출로 해야 되는 이런 게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평소에 청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방위산업계약 특별법 이것을 제정해서 그동안에 특수한 분야에 있는, 특수한 조건이라 돼 있는 것을 계약법에 포섭해서 더욱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연구개발 과정에서 무기체계가 개발된 이런 어떤 지적소유권이라든지 그런 리스크의 분산이라든지 또 이익의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어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예.

○민홍철 위원 그래서 국가가 주도하든 민간이 주도하든 그 이익을 분점하고 또 리스크도 분산시키면서 MRO 이후까지, 운영·유지에서까지 같이 갈 수 있는 특수한 계약 분야를 별도로 규정을 해 줘야 이게 지속 가능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청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국가계약법의 특별법 형태로 지금 방위산업계약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률 제정이 갖는 효율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국가계약법의 일관된 체계를 흐트리는 것에 대한 재정 당국 쪽의 어려움도 있고……

○민홍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국가계약법의 체계를 호트러뜨리자는 게 아니고요. 방위산업 분야에 있는 특수한 계약조건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일반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연구개발은 또 장기간, 기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러다 보면 민간이 선불리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규율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통합적으로 하는 방위산업계약법이 특별법으로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도 국방과학기술 촉진법하고 방위산업 지원법 등등으로 해서 그리고 방위사업법 자체로도……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법에 하나하나 조항씩 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포괄해서 하나의 특별 계약법, 그러니까 특별법으로서의 계약법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검토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8시 30분, 20시 30분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의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장관님 그리고 총장님들께도 마이크 좀 드려 주십시오, 제가 좀 여쭙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우선 장관님, 우리 육군사관학교에서 쿠데타를 하라고 가르치지 않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리고 육군참모총장님, 육사 출신이신데 당연히 학교 다니실 때 쿠데타 이런 것 하면 안 된다고 배우셨지요?

○육군참모총장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에 물론 안 좋은 일을 한 경우들도 있지요. 있지만, 예를 들면 김오랑 중령이랄지 아니면……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에 전사자 그리고 순직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육군참모총장 김규하 예,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육군참모총장 김규하 13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굉장히 좋은 활동들, 나라를 위

해 목숨을 바친 활동들은 다 차치하고 육사 출신들이 세 번의 쿠데타를 했으니까 육사를 폐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너무 단순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과 과오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천하람 위원 그런데 장관님, 사실 우리 국방부에서도 비상계엄, 내란 행위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계획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 국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육군사관학교 폐지라든지 3군사관학교 통합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실제 그렇지요?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폐지가 아니고요, 학교가 폐지가 아니고 통합이 되는 거지요.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통합이든 폐지든 단어를 어떻게 하든 간에 기존의 비상계엄 같은 위법한, 위험적인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국방부의 방안에 그런 통합은 들어가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리고 아까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통합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육해공군의 하나의 기수로 뭉쳐져서 오히려 견제 세력이 더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 기수가 어떻게 보면 뿔뿔 뭉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위험성은 혹시 고려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숫자가 많아짐으로써의 정보의 제한도 있을 것이고 또 쿠데타를 하기 위한 은밀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더 저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하람 위원 글썄요. 그게 그런 식으로 작동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지 해외 사례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된 자료가 좀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육군사관학교, 그러니까 이렇게 사관학교가 통합이 된 경우에 이게 실제 인과관계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보고서들은 좀 있으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런 보고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천하람 위원 제가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저희한테도 한 부 좀 보여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리고 저는 육군사관학교에 그런 연좌 책임을 묻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육군사관학교 출신들도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 치면 해군사관학교랑 공군사관학교는 무슨 잘못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뭐 잘못……

○천하람 위원 저도 자꾸 통합 말씀하시는 것 알겠는데요.

그런데 해군참모총장님, 얼마 전까지 해군사관학교 교장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해군참모총장 김경률 예,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해군사관학교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정말 바다를 무대로 뛰는 해군의 장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함정 타서 훈련하고 이런

때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와 가깝게, 바다와 함께 정말 생활하면서 그 바다의 기상을 제대로 느끼면서 저는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해가 이미 해군사관학교 교육을 하기 위해 최적의 조건을 오랜 기간 확보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대전도 좋은 곳이지만 바다가 있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내륙지역에서 해군사관학교 교육을 한다는 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지금의 환경보다 나아집니까?

○**해군참모총장 김경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해군장교를 양성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좋은 자질을 갖춘,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자질을 갖춘 장교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 그다음 두 번째 해군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갖춘 장교들이 들어오느냐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국방부의 정책방향은 좋은 자질을 갖춘 장교를 양성하고, 다음 군에 필요한 사항은 또 군에 자율권을 주겠다는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하람 위원**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천하람 위원** 예, 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 국군사관학교 창설 배경은 인구절벽 시대가 다가옵니다. 2040년 되면 현재에 비해서 약 45% 학령인구가 줄어들고요. 그 뒤로 3년이 가면 11만 800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병사들 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봤을 때 약 18만 60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를 앞으로 인구절벽 시대에 맞춰서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합동성이랄지 또 교육 효과의 극대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희들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운대로 가냐 하면 자운대는 아시다시피 대전에 ADD를 비롯한 KAIST, 여러 가지 대학들이 약 90여 개의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최적의 적지로 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첨단, 그러니까 각군의 벽이, 칸막이가 없어지는 최첨단 과학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12·3 내란의 밤 때 많은 군인들께서 그래도 위법한 윤석열 내란수괴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이행을 지체하거나 뭔가 소극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큰 희생자가 없이 내란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도 탄핵결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냥 내란 목적에, 이런 위법한 계엄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함으로써 이것이 큰 피해가 없이 끝난 것이지 이것이 윤석열 본인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재판부나 헌재가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란의 밤 때 소극적 저항을 했던 3명의 장교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라 그래 가지고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한 사실이 있지요, 장관님? 박정훈 대령과 함께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국방부에서 그것을 심사했을 때는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내란특검에서 인정한, 소극 대응 끝에 지시를 거부해서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했다고 판단해서 불입건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와 민간위원이 참여한 공적심사를 거쳐서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 당시 확인된 자료와 절차에 따라서 심도 있게 서훈을 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튼 이 사건이 발생되자마자 검찰 특수본이 일단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국수본이 수사를 했고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를 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리고 군검찰이 또 했고 또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이 해 가지고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극적 대응 끝에 서강대교를 건너지 마라 병력을 유지시켜 놓고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해서 불입건했는데 장관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엇그저께 종합특검이 이러한 견해와 정반대로 조성현을 지금 내란 관련자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종합특검하고 1차 특검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러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국방부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한 사람을 검찰에 기소하면 훈장이 취소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송영길 위원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이게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방부장관 안규백 여러 가지 수사 결과와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 판단에, 국가기관의 판단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국수본, 검찰 특수본 그리고 조은석 특검, 육군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다 무혐의로 인정이 돼서 서훈까지 받은 사람을 종합특검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게 아니라 이미 사실관계는 다 나와 있는데 해석을 달리한 거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방부가 절대 종합특검의 기소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내란에 있어서 일관성, 체계성 그리고 진술의 번복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아니, 군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가 명령을 내리면 일단 그걸 수용해서 받는 게 일반 군인의 자세 아닙니까. 그때 이것이 위법한 건지 위헌인 건지를 바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대테러 진압작전인지 아니면 무슨 불순분자가 들어와서 무슨 소요를 발생했다든지 뭔가 착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국회의원들 잡아넣으라고 그러니까 아 이게 아니네 싶어서 소극적으로 있다

가 좀 더 진행되면서 불법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철수했다는 것인데 그 순간의 판단의 약간의 내용을 가지고 내란 혐의자로 기소를 하면 우리나라 국군들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앞으로.

명령을 수행해도 안 되고 안 한 것도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위법한 명령을 받는 현장 지휘관의 행동 기준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 군인들에게 국군 통수권자의 지시가 있었는데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들, 대법관들조차도 그날 밤에 대법관회의를 열어서 이것이 위헌적 행위임을 선언을 못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왜 탄핵하려고 그러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최고 전문가들인 대법관들이 모여서도 윤석열의 행위가 위헌인지 아닌지를 몰라 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엄 되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회의한 것으로 지금 추측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근데 하물며 법률 전문가도 아닌 육군대령이 어떻게 위헌인지 바로 이걸 판단하냐고 이거를. 지시를 하면 뭔가 국군 통수권자가 내가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무슨 불순분자라든지 무슨 테러나 뭐가 생겼는지 처음에 의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와서 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이제 소극적으로 하다가 철수한 사람을 이걸 가지고 내란죄로 기소를 하면 어찌란 말입니까, 앞으로? 우리 지휘관들을 어떻게, 이런 군인들을 이렇게 희생양으로 만들어도 되는가라는 게 분노가 생기는데 이 특검에 대해서 저는 국방부가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이것을 대응해서 억울하게 기소된 조성현 대령의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송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용원 위원 장관님,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 9쪽 관련된 질문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여러 가지 안보정책, 태세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9쪽에 있는 KMPR 관련해서 고위력 미사일 수량 대폭 확충 및 성능을 개선해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고 잘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성능에 이제 관통력, 파괴력 등의 성능 개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물론 보안상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강의 고위력 미사일 현무-5로 불리는 미사일을 우리가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탄두 중량은 8~9t으로 언론보도에서는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보다 탄두 중량이 큰 어떤 새로운 형태의 고위력 미사일을 개발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약간 성능 개량을 하는 차원인지……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가 중동전에서, 중동에 최근 1년에 일어난 세계 전쟁에서 보면 핵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핀 포인트 미사일로 전쟁하는 걸 우리가 많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무 시리즈가 지금 5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성능 개량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전혀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새로운 차원……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예산도 대폭 확충한다고 그러는데 몇 배 정도 이렇게, 숫자는 말씀하시기 힘들겠지만 상당한 수준의 수량을 확보하겠다는지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SNS에 이런 내용을 올리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연합연습, 기동훈련 축소, 평화체제 의지 노력에 공감한다 이런 SNS를 올리셨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장관님께서도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대통령께서는 페이스메이커를 하신다고 1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유용원 위원** 근데 우리 합참차장님.

○**합동참모차장 권대원** 예.

○**유용원 위원**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요?

○**합동참모차장 권대원** 대통령님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제한되고 저희들 연습이 줄든 또 늘어나든 계속 연합방위태세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저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통일부장관께서 어떠한 한반도의 평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국방장관이나 군복을 입고 계신 군인들은 여기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시는 것은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장관께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유용원 위원** 그리고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 장관님께서 잘 아시지만 핵잠수함 사업이 제대로 가려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기구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안정적인 예산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국방부에서 특별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제가 내용을 다 읽어 봤는데요. 상당히 고심과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추진위원회가 보면 전략위원회가 총리실 산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제대로 추진력을 가지려면 국방부 단독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외교부 그다음에 기후환경 파트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에너지부 이쪽도 협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 대통령실 직속으로 설치를 해야 제대로 추진력 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총리실을 한 것은 정부 각 부처를 통할하기 때문에 더 아주 민첩하게 통제할 수 있고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총리실로 하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5년간 존속한다고 돼 있어요. 이걸 5년 내에 실현될 수 없다는 거 장관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몰 규정이 있는 거는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가 핵추진과 관련된 국내법도 2년 안에 제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차적인 준비를 하려면 5년 정도의 소요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보면 별도 특별회계 없이 일반 재원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회계를 해야 제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제 법이 제정되고 나서 다음 단계에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 원안위가 사실은 굉장히 독립성이 강한 기관이고 국방부가 어떤 주도권을 갖고 컨트롤하기 힘든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안위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원안위하고는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유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원 위원님이 그 사이에 오셨는데 순서가 지나서 마지막으로 임종득 간사 위원님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박선원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진성준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임종득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득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3군사관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장관님이 각군 사관학교 방문한 적 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사관학교별로 몇 명 정도를 만나서 대화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학교마다 약간씩 좀 달랐습니다. 생도 대표들하고 교수진하고 교직원도……

○임종득 위원 몇 명 안 되지요?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통상 바쁘신 장관님이 사관학교를 가면……

○국방부장관 안규백 육사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임종득 위원 굉장히 많아도 몇십 명밖에 안 되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한 백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기본적으로 전 생도들을 모아 놓고 장관님의 철학을 이야기하든지 사관학교 통폐합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적은 인원을 모아 놓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공군사관학교 가서 가지고 발언하신 내용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

고 게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두 가지인데 그중의 하나는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알고 계시니까 이야기 안 하겠는데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폼훼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폼훼의 발언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군사관학교가 생도들이 더 의젓하고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얘기는 제가 들을 필요는 없어요. 전 군을 지휘하는 장관으로서 공군사관학교에서의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슬라이드 한번 올려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님 모시고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장관님이 하신 말씀을 아까 성일중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 답하시지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여러 가지 좀 하셨습니다. 지금 20만 명 이상의 정규군을 보유한 나라에서 사관학교가 있는 데가 30개나 돼요. 이거 보고 안 받으셨지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음 러시아, 중국 공산국가에서도 사관학교가 없고 1년, 2년 양성 과정이 많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성일중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팩트가 맞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자료들을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대통령님한테는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야지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사관학교 정보나 교육기관의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건 잘 모릅니다.

○임종득 위원 올려 보시지요.

북한의 장교 양성 과정에도 지금 해군, 공군, 육군이 따로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번 올려 주시지요.

정책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성준 정책실장 발언대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임종득 위원 정책실장님은 그날 발언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나 가지고 대통령님한테 정보를 주셨는데, PPT 한번 올려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올려 주세요.

기억나시지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김홍철 예.

○임종득 위원 이게 사실입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김홍철 예,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김홍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종득 위원 양쪽에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게 무슨 소리지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김홍철 ……

○임종득 위원 다음 PPT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30만 이상 정규군을 보유한 국가가 22개 국가가 있습니다. 40~50만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8개국입니다. 그중에 통합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2개밖에 없습니다. 이것 모르셨어요? 모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김홍철 전체적으로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임종득 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만 답해 주세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김홍철 저 국가들에……

○임종득 위원 지금 스스로가 손을 들고 대통령님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김홍철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이 아닌 걸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김홍철 9개 국가 중에 해당하는 국가가 없다라고 저는 설명을 한 겁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하고 내가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가 다른 것 인정하시지요?

들어가세요.

다음 PPT 한번 올려 보시지요.

장관님, 지금 계속 국군사관학교 통합과 관련된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5월 6일 날 우수인재 모집. 7월 16일 날 사관학교 위상 저하, 학령인구 감소, 자원 비효율 심각. 업무 보고했던 8월 10일 날 잘못된 역사와 단절.

지금 진짜가 뭐니까? 진짜 이유가 뭐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 내용들이 다 통합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득 위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처음에 우수인재를 뽑기 위해서 한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을 설명했을 때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본계획 발표 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통령님이 한 말씀하시니까 또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러한 메시지 전달을 보면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진짜 통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 한번 올려 보세요.

총장님들, 제가 각 총장실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밝힌 대로 제가 정리한 게 맞지요, 육해공군 총장님?

육군, 맞습니까?

○육군참모총장 김규하 예.

○임종득 위원 아직도 별도 입장이 없어요? 지금도 별도 입장이 없는 겁니까?

○육군참모총장 김규하 육군의 입장은 국방부의 정책 결정이, 통합사관학교로 가겠다고 하는 결정에 저희가, 그 통합사관학교로 가는 목적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한 숙고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의 가용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통합해서 이것을 잘 뒷받침하는 게 저희 육군의 입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종득 위원 해군은요?

○해군참모총장 김경률 해군은 위원님께 제출한 답변서와 입장이 동일하고, 조금 전에 또 천하람 위원님께 관련 설명을 구두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득 위원 공군은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도 위원님이 제시하신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임종득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의 군정권을 총지휘하는 책임자입니다. 사관학교는 장교 양성이 백년대계입니다. 백년대계예요.

○김병주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발언과 처신들을 모두 군이 지켜보고 있고요,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장관님, 오늘 내란에서 별짓 다 하고 빠져나간 사람 있었지요, 심우정? 기소됐습니다. 조희대도 똑같이 기소될 겁니다.

왜 우리가 국군사관학교를 통합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폭넓게 진화·발전하는 거예요. 군사전략적인 측면이 있고 통수권자로서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결합돼 있는 겁니다.

지금 멀티 도메인 인터그레이션(multi-domain integration), 다영역 통합작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늦었어요.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다영역 통합작전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같이 좁은 전장 환경에서 다영역 통합작전 생각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돼요, 언어도 안 통하고 용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전략적으로 당연히 국군 3군 통합사관학교를 생각해 볼 때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역사적으로 쿠데타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 막아야지요. 지금 간부들이 쿠데타 할 걸 사관학교로 막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과 국방장관이 보시는 것 그리고 각군 총장이 보는 것은 다 수준과 시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건 통합돼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겁니다. 군사전략적으로 다영역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관학교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교수진 숫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3000명 교수진 중에 정말로 대학교 정교수급 교수가 몇 명이나 있어요? 거기에 더 투자해서 업그레이드하자는 것 아닙니까? 1·2학년까지 합치고 그다음에 진해 그대로 두고 청주 그대로 쓰고 3·4학년 때 공군 그대로 쓰고 진해 해군이 쓰고 그리고 육군은 바로 옆에서 자운대에서 계속 쓸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교육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복

합적이고 진화·발전하는 겁니다,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내란 억제입니다. 여기 존경하는 성일중 위원, 김현태 만났지요. 그렇잖아요? 내란죄에 공소시효 없습니다. 그 점만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정은과 좋은 관계에 있고 나한테 2년 반 동안 한 번도 나쁜 짓 안 했고 나에게 잘 대해 주고 있다. 나는 그 사람 수없이 만나고 있고 가장 큰 장면으로서 두 번 정상회담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란전쟁이 지속되면서 미 해·공군 항공모함 얼마나 지쳐 가지고 힘든 것 다 알잖아요. 헤그세스가 1조 5000억 달러를 국회에, 미 상원·하원에 가서 방위비 더 달라고 그랬다가 박살 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쟁을 승리하고 있다고도 아직도 단정을 못 하고 이기겠다는 확신도 못 주고 있으니 결국 그것은 대통령과 헤그세스 너희들 리더십의 문제다,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군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 조야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항공모함이 지금 동북아 전역에 없고 중동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마지막 가용한 항공모함이? 그런 상태에서 동북아 전선이 편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트럼프로서는 한 곳에서는 싸우지만 한 곳에서는 평화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게 전통적인 미국의 전략입니다. 중동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동북아에서는 편해야 된다. 왜? 1과 2분의 1 전략이니까, 메이저로 하나 있고 로컬로 하나 있고 미국 본토 지키는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북아 평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이라크 때릴 때도, 부시가 이라크 때릴 때도 동북아에서 6자회담이 된 겁니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한 것은 다른 중동 전역에서 전쟁이 있지만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의 기운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시면서 호응하시는 거예요.

우리 군에 대해서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브린슨은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멈추라고 해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까? 통수권자의 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군인의 태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국방을 지키지만 더 큰 틀에서 나라를 운영하고 더 큰 틀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안보의 출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말씀들 하시는데, 대통령들은. 우리 군 장성과 지휘관들은 그것을 알면서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뜻도 부응하면서 동시에 국방도 튼튼히. 오늘 전쟁이 일어나도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게 제복 입은 우리 군 지휘관들의 기본 태도 아닙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맞습니다.

○박선원 위원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뭐 이리 질문 같지 않은 질문 가지고 그러세요?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예, 1분 더 드리세요.

○박선원 위원 장관님, 우리 핵잠수함 추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박선원 위원 매우 다각적으로 필요하지요. 연료 문제도 있고 IAEA와 협력관계도 있

고 우리가 NPT 체제에서 평화적 핵활동에 이용 권리의 확장도 있는 것이고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전선에서 중국이 댔든 누가 댔든 불특정 위협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수단을 갖기 위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것이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 정부 사이에 합의될 수 있다는 것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곧 미국 가서 좋은 회담을 하자고 신호를 보낸다는 것, 이것이 동맹의 상징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맞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뭐 동맹 흔들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진보정권이 동맹도 잘하고 안보도 잘한다, 항상 여기 계신 분들 자신감 가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할 때인데요. 추가질의는 간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한다. 그런데 지금 희망사항을 파악을 못 했으니 이 자리에서 추가질문 하실 분들을 잠깐 파악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분들은 거수해 주시겠습니까?

김성희 위원님을 빼고는 다 하신다는 것이네요.

○김성희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계신 분들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장관님, 아침의 업무보고와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장관님 답변을 확인하는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북한은 MDL 일대에 지뢰, 철책 등 장애물을 설치하는 동시에 240mm, 600mm 방사포, 자주포, 무인기 등 접경지역 군사력 증강을 추진한다.

접경지역 군사력 추진하는 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mm 방사포는 아직 전방이나 이런 데 배치된 정황들은 없고 지금 무기 실험하고 전력화가 시행이 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배치된 것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병주 위원 아침에는 답변이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뜻이 아니고 배치가 예상이 된다, 배치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배치가 앞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600mm 방사포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서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요.

얼마 전에 안보실 김태효 1차장이 기소가 된 것 알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이 12·3 내란을, 미국을 미루해서 우방국에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전문을 보낸 이유라는 것 알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병주 위원 그런데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에서……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태효가 보낸 것과 비슷한 투로 장병들에게 완전 내란을 미화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12월 13일 자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통치행위다. 이미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10일이 지난 시점에 이런 것들로 병사들을 교육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다음 볼까요?

그 당시 홍보원장은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대통령 취임 당선 특집은 왜 이렇게 많이 넣었냐라고 지적하고, 이재명·트럼프 한미 정상 첫 통화는 가짜뉴스니까 빼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새 정부 첫 국무회의는 대통령 기사 많으니 빼라. G7 순방 기고문은 망한 회의라서 미화할 필요 없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 해설 지면, 오버하지 마라. 이재명 정부 첫 국무장관 임명, 다루지 마라.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했던 취재팀장 조용학 기자는 오히려 강등을 시켜서 일반기자로 하고 아직 원위치가 안 된 거거든요.

1분만 주시지요.

○위원장 진성준 예, 1분 더 드리지요.

○김병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때 홍보원장이 채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란과 관련된 어떤 처벌을 아직도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것 조사한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됐지요? 왜 아직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안 된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그때 저항했던 조용학 취재팀장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서, 이런 걸로 저항했다고 처벌받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명예회복이 필요하고 이것은 빨리 확인을, 아마 그때 하신 걸로 아는데 종합특검에 고발을 해서 종합특검에서 이걸 다루어서……

이건 진짜로 중범죄자입니다. 내란을 장병들에게 옹호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12월 13일 이후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병주 위원 끝까지 단죄하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지적사항을 한 번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걸 꼭 단죄하세요. 왜냐하면 김태효도 지금 기소됐잖아요. 종합특검이 그걸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특검이 못 하면 나중에 다른 기관에 고발을 해서라도 꼭 단죄해야 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성일종 위원** 장군님, 군은 명예를 먹고 살지요? 많이 들으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군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다 명예를 먹고 사는데 특히 군은 사기와 명예를 먹고 살지요.

○**성일종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계엄에 관련돼서 불법적으로 여러 분명히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령고 그 이후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위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기억납니다.

○**성일종 위원** 기억나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성일종 위원** 아마 그 당시는 국회의원으로 계셨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강동길 해군총장이 있어요. 또 주성운, 이승오 장군들이 계신데 강동길 총장이 왜 직무배제되고 그리고 정직 1개월이 됐었고 해임이 된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전역을 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성일종 위원** 그 과정이 어땠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과정을 제가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 왜 그게 다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검에 가 갖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진술을 한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성일종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평생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참 단순한 분들이예요. 명예만 하나 가지고 사는 분들 중의 한 분이신데……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총장으로 추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일종 위원** 그런데 이분이 직무배제가 됐다가 정직 1개월을 받고 옷을 벗었는데 특검에 가 가지고 이게 무혐의로 나왔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은 정말 꼼꼼하게 이걸 수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왜?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방부에서 조사할 때는 사법권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이

것에 대한 명예회복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형사적 책임의 법적 책임과 또 행정적 징계절차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지금 직무하는 과정에서 상황실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다음에 이게 아니어서 약 1시간 정도 이내에……

1분만 더 주세요.

김명수 의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좀 이상하다고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게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성일종 위원 전쟁터에서 잠시 상황 판단을 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 지휘관이 다시 그 상황을 전쟁터에 제대로 해 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4성의 장군이고 총장 했던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특검이라고 그런 데서 살살이 했어도 사법적으로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결론이 났으면 이것에 대한 명예회복을 비롯해서 몇 사람들은 구제를 해 주는 것이 나는 군이 해야 될 일이다. 이분들 평생 군인으로 산 분들이잖아요. 이 명예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켜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징계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체적 진술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상당히 부정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성일종 위원 구체적 진술이 특검에 가서도 그대로 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이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조사한 자료가 특검으로 넘어가서 모든 보조자료로 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됐으면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잘 알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공정하게 해야지 저쪽 왜 시간을 그렇게 많이 줘요, 위원장님?

○위원장 진성준 마이크를 드린 것은 아니고……

○박선원 위원 계속해서 쫓잖아, 아까 유용원 위원도 그렇고 임종득 위원님도 그렇고.

○柳榮夏 위원 1분 더 준다고 자꾸 그러고 있어.

○박선원 위원 다들 피곤한데 그러지 마세요, 지금.

○성일종 위원 엔간히 좀 하세요, 엔간히.

○위원장 진성준 질의시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 위원**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해서 팩트체크 몇 가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군사관학교 신축을 하고 자운대의 군사시설, 각 사관학교의 시설들 연쇄 이전하면 예산 낭비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장관님, 현재 지금 사관학교 기존 시설들로 달라진 미래전 환경 대비가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첨단과학사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하해서, 투자해서 사관학교를 지금 신설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성희 위원** 보니까 예를 들어 육사의 인현관 같은 경우는 71년에 지어서 55년 도과를 했고 해사의 선무관도 78년 이것도 48년 도과를 했고 공사 같은 경우도 학교 본부 및 별관도 4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것 지금 단순히 예산이 얼마 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미래전 환경에 부합하는 우수한 군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구조적 투자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허투루 쓰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도 좀 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미래국가를 책임질 생도들한테 더 좋은 여건에서 더 좋은 여러 가지 교육환경과 또 양질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군의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데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 정도로 해서 꼭 좀 잘 예산을 아끼면서도 또한 아낌없이 투자를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하는 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잘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리고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나온 얘기 보니까 연합훈련 조정, 전작권 전환, 북한의 핵 보유 문제에 대해 관련해서 우리의 강한 국방력 또 한미동맹을 의심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불안을 조장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 이런 방위의 공약 재확인이 된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도 할 수 없었던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보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희 위원** 2018년에 한미가 합의했던 전작권 전환 이후에 연합방위지침에서도 전환 이후에도 현 연합사 체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 오늘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작권 회복 이후에도 6개의 연합 구성군사령부를 상설화해서 연합방위체제가 더 견고해진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더, 견고함을 넘어서 아주 바퀴의 양축처럼 앞으로 동맹을 넘은 혈맹관계로 갈 것 같습니다.

○**김성희 위원**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부터 시작해서 핵추진잠수함 배치까지 한미 간의 정말 실질적인 공고함을 보여 주는 이 상황에서 이런 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흔들려고 하는 정책들은, 그런 발언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한미가 어떤 안보나 국방 현안이 있을 때는 거의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국방 당국자, 군사 당국자들이 협의하고 숙의하고 또 만나서 깊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김성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榮夏 위원 장관님, 아까 제가 보충질의 때 총장께서 공군기지에 대해서 작전성 검토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런데 위원님, 이게 여러 가지 비밀사항도 많이 있고 그런데……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또 추가로 질의를 하고 마무리 때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광주 군공항은 장관 아시다시피 청주, 김해, 수원, 대구와 함께 국내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인 건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래서 결국 유사시에 미 항공전력이 전개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위한 전개의 거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주 군공항은 미군 전용면적만 22만 평, 한미 공동으로 한 29만 평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광주기지의 기능을 없애면 미군과 공여시설 반환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전쟁예비물자 지원시설은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유사시에 미 항공 전력을 어느 기지에 수용할 것인지 또 광주가 담당하는 COB 기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도 한미 간의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柳榮夏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미군 측이 광주 COB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종료하거나 다른 기지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타임라인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동의를 받았습니다.

○柳榮夏 위원 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한미 양국은 2020년부터 광주의 기지를 무안으로 이전시키는 걸 전제로 해서 2033년 이전을 전제로 해서 협의했던 걸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때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광주에 반도체 공장이 지어진다는 이후에 계속 협의를 다시 또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니까 미국은 처음부터 2033년에 무안 기지로 기지를 이전하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 당국과 협의를 해 왔던 거지요. 그런데 2028년 중순은 5년을 당기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2023년으로 미국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당겼는데 장관께서는 2028년 중순에 맞춰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문제는 양국 간의 협의를 할 때 기존에 있는 협의 기간이 있으면 그걸 사전에 서로가 양해를 하고 가는 게 순서가 맞다고 봐요. 다만 이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미7공군이 얘기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례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광주 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아마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장관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대통령 말씀도 중요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반도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반도체가 중요해도 국가안보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총장을 비롯한 국군장병들 제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펙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광주의 제1전투비행단을……

1분만 쓰겠습니다.

국방부가 광주에 있는 제1전투비행단 이전 계획을 대통령께서 제시한 날짜가 아니라 먼저 군이 전투조종사 양성 계획이나 또는 KF-21의 전력화 또는 서남권 아까 말한 KADIZ의 영공 방위에 문제가 없는지 또 한미연합태세가 제대로 되는지 이걸 먼저 파악해서 저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장께서는 충분히 검토가 됐고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 그러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군에서 대비하는 게 1초 1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마 여기 총장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군에서 대비하는 건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갖고 절대로 안보는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장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말씀 잘 인지하겠습니다마는 반도체도 가장 중요한 안보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전성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분산을 해서 전력에 손실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다 갖추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柳榮夏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관님, 제가 듣다 보니까 사실 좀 의아한 게 지금 전 세계에서 합동성이 가장 뛰어난 군이 어디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합동성……

(「대한민국……」 하는 위원 있음)

○천하람 위원 대한민국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나라마다 또 역사와 사회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각 군에 사관학교가 있다가 통폐합,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천하람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개별 사례는 알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말씀에도 보면 여러 단계별로 나눠 놓으셨는데 가장 높은 수준의 합동성을 구사하고 있는 군이 아마 미군이라고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천하람 위원 미국 같은 경우에 사관학교가 통합되어 있습니까, 개별화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미국은 각 학교마다 개별화돼 있지만 우리하고 구조가 다릅니다.

○천하람 위원 예, 저도 알고 있는데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한 학년에 1100명입니다.

○천하람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런데 다만 장관님, 이게 그런 겁니다. 합동성에 있어서 만약에 통합이나 개별 어떤 사관학교 운영이냐가 정답이 있었다면 모든 나라가 그걸 따라갔겠지요. 말씀하셨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관학교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합동성을 강화할 만한 합동훈련이라든지 정말 여러 멀티 도메인을, 여러 가지 전장환경이라든지 실제 풍부한 실전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동성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사실은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실제 합동성 교육이 일정 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소령 진급했을 때 기초교육 하고 중령·대령 진급자 대상으로 심화교육도 하고.

저는 그래서 물론 합동성이나 쿠데타 방지나 그게 섞여 있는 거나 말씀들은 많이 있지만 이게 진짜로 합동성 강화하자, 아니면 앞으로의 정말 통합된 미래 전장을 대비하자라고 하는 거라면 우리가 기존의 육사·해사·공사가 가지고 있던, 어쨌든 여러 기관이 가진 노하우들을 다 통합하면서 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할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통합훈련에 더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군이라고 해서 항상 전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닐 것, 모든 군의 구성원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성에 기반한 훈련을 철저히 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건데, 우리도 사관학교만 통합한다고 합동성이 길러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 거였다면 미군도 진작에 통합했겠지요, 거기서 훨씬 더 통합작전도 많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지금 우선순위가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장관님은 혹시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1·2·3·4학년 합쳐 봤자 2900명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사관학교마다 4400명입니다. 규모의 경제부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좀 해놓고 그러고 나서 모든 첨단과학 이런 것들이 투자가 돼서 앞으로 이 학교를 더 발전을

시키자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하람 위원** 규모가 커진다고 무조건 좋아질까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리고 지금 사관학교 교수님들 역량이 굉장히 많이 낮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굉장히 적박해 있고요. 그런데 이 보수부터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원 위원** 공군총장님 잠깐 뵙까요.

수호이나 J-10 뜨면 우리가 뭘 띄워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최저 F-16이지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F-15 또는 F-16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FA-50 띄웁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그보다 낮은 또는 그 기종 이하를 할 것입니다.

○**박선원 위원** 그것은 안 하잖아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KADIZ 뚫고 들어와서, 이어도에서 뚫고 들어오는데, 그것 뺏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FA-50 띄워 가지고 막습니까? TA 띄워 가지고 막습니까? T-50으로 막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별 쓸데없는 걱정 다 하시는 것 같고요.

무안공항은 우리가 쓸 겁니다. 무안공항은 결국은 복합공항으로 갈 겁니다.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위원님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선원 위원** 그리고 서남권 방위와 미군의 증원전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광주공항을 대체하는 그러한 공항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태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번에 오히려 반도체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그 시기가 더 당겨졌다. 그리고 군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1전비 최근에는 가 보셨나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곧 갈 예정이고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박선원 위원** 충분히 넓은 땅이고 다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서 이 삼십 미터 정도 높이 올라갈 때 이전하고 이런 계획, 시간차를 잘 맞춰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군에서 두 마리 토끼를 충분히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텀업과 톱다운이 늘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는 보텀업으로 면밀하게 구체적인 걸 따지는 거고 그다음에 위에서는 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고, 그래서 보텀업 레벨이 있고 톱다운 레벨이 만나서 전체적으로 복합해서 정책을 끌고 가는 거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 준 건 잘못이고 밑에서 위에 올라가는 건 옳다 그런 건 없어요, 정책에서. 정책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익에 맞춰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란세력이 다 뿌리 뽑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운이 좋아서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야에서 사라져서 그냥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천희 정보본부장이 12월 2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김용현하고 같이 있으면서 F 계획 다 했지 않습니까? F 공작계획 보고받고 정보사 쓴 것 다 보고받고 그 이전에는 작기부장하고 같이 다 내란 준비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아파치 헬기 띄우고. 그것 다 같이 했었던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기소……

(방청석에서 — 「전역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전역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들 잘 찾아내셔야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전역했습니다.

○박선원 위원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용원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도 공군총장님께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나오시지 않고 자리에서 마이크 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앞서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확인 차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공군 계획으로 예천, 서산, 중원 이 세 군데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다음 PPT 띄워 주세요.

기존에 항공기들이 총 60여 대가, T-50, TA-50, 60여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 항공기들이 예천하고 서산 등에 가면 별도의 격납고가 필요하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격납고 대신해서 유개형 리베트먼트라고 해서 임시시설이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까,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추가할 예정입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그 만드는 데 얼마나 걸려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2년이 채 안 걸립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시뮬레이터 아닙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시뮬레이터 장비 및 시설이 필요하지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그렇습니다. 이전할 계획입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토목공사를 진행할 때 이전을 같이 또 업체하고 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유용원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뮬레이터 장비 도입하는 데 두 차례에 걸쳐서 총 680억, 7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시설공사의 경우는 2년에서 4년이 걸렸습니다. 1차, 2차 나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과거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천이라든지 서산에 활용할 수 있는 빈 시설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그러한 시설 위치들을 다 파악을 한 상태로 검토를 했고 또 저기에 대한 이전비용까지 다 확인을 했고 그러한 부분을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유용원 위원 이전비용은……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신축하는 데 저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지 실제로 이전하는 데는 수개월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다 확인하고 업체까지도 다 확인했습니다.

○유용원 위원 이전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정합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되지만 수십억 정도 됩니다.

○유용원 위원 그 정도면 해결이 될 수 있다?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시다만 단순한 시설, 항공기만 옮기는 것으로는 현실적으로 준비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유영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파악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라, 그러한 부분 하나하나 또 장병들의 주거여건까지 다 고민을 해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용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대통령께서 2028년 중반기 말씀하시기 직전에 총장님께서 보고받으셨겠지만 모 참모께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기존 기지가 포화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어려움은 저희가 극복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직들도 재편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원 위원 장관님, 이것 국방부 옮긴 것 3000억의 5분의 1도 안 되니까 하세요, 우리가 예산 다 대 드릴게요.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임종득 간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득 위원 총장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방금 유용원 위원 질문에 시뮬레이터 이전과 관련해서 검토 다 끝났다 그러는데 지금 3개의 공항으로 가잖아, 그렇지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광주에서는 한 곳에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나눠서 가는 겁니까, 시뮬레이터가?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교육,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순차적으로 이동.....

○임종득 위원 아니, 지금 광주에 있는 시뮬레이터를 3등분 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그 부분은 좀 세부적인 부분이라 따로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임종득 위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제가 정확하게 최적화시켜서.....

○임종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대가 다 같이 쓸 것 아닙니까, 그 시뮬레이터를? 그런데 그걸 3개로 쪼개서 옮겼을 때 비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모르고 묻는 게 아니고.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 기지에 있는 시뮬레이터는 그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교육의 연속성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

○임종득 위원 아니, 3개로 어떻게 나누냐는 걸 제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그리고 또 나눌 때의 기간이 수개월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을 교육 차반의 운영에 기준을 두어서 했기 때문에.....

○임종득 위원 그것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떡위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촬영 그다음에 문서나 도서의 발간·복제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것은 불법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돼서……

다음 띄워 보세요.

많은 것들이 지금 언론에 릴리즈되고 있습니다.

공군참모총장님, 광주시나 언론사로부터 보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촬영이나 배포 승인한 적 있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승인한 사례가 없고 배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승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장관님, 이 사진이 지금 배포되고 있어요. 그것도 시에서 줘 가지고 배포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걸 좀 적극적으로 통제하세요.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띄워 보세요.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돼서 이게 군 공항 이전사업입니까, 별도의 국방시설 사업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대양여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이에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 사항 같은 것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른 법으로, 일반법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일반법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일반법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올려 보세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28조 및 31조를 보면 절차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8월 달에 대통령께서 지시하고 난 다음에 이것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다 위법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1월 달에 중기 태워졌어야 되고요. 연도 계획이 지금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8월 달에 하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법을 제정해서, 새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아마 할 겁니다.

○임종득 위원 그래도 내년 예산은 안 될 건데요.

○박선원 위원 가을에도 미사일 숫자 늘릴 때 다 예산 태워요. 뭘 소리 하고 있어.

○임종득 위원 질문할 때 좀 끼어들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박선원 위원 나도 그렇게 했었어요. 미사일 늘려 달라 해서 다 가을에 태워 줬어. 뭘 소리 하고 있어.

○임종득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박선원 위원 비닉사업 다 그렇게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임종득 위원 다음 하나 띄워 보세요.

지금 광주기지 이전 정부 방침과 관련되어 가지고 계획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닙니다. 정부와 기재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절차, 예산 받는 절차들이 다 무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것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득 위원님.

그러시면……

임종득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柳榮夏 위원 아니요, 그냥 서면질의하셔요.

○박선원 위원 모르는 게 없어요, 저분은.

○위원장 진성준 그러니까요. 베테랑이신데 앞으로 또 결산심사소위원회 운영도 해 가시면서 소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980년대 대학생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녹화사업 진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장 진성준 방첩사가 해체되고 각 기능들이 이관되면서 방첩사에 보관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이 강제징집, 녹화사업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자료 보존 조치를 철저하게 하면서 이관사업 진행하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수백만 건이 되는데 3개 기관에 분산해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사와 관련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국가폭력사건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국가폭력사건의 진상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강제징집, 녹화사업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해내는 후속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그런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가에 의해서 강제징집되거나 또 국가폭력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관련해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셔서 국방위원회에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의 전력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군의관 그다음에 수의장교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똑같이 인식하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그렇지요? 그러면 군의관 인력 또 수의장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이 신속하게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병 복무가 단축됨으로써 군의관들이 군의관으로 안 가고 병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라는 여러 가지 장교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고려해서 그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비서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문제의식만 우리 국방부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닙니다.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 계획을, 대책을 수립하실 생각이신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정부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립해서 수립되는 대로 국방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장 진성준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의견들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025회계연도의 결산은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8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병주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8월 31일 오후 2시에 결산을 의결하고 법률안을 상정하는 의사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서면질의가 좀 있네요. 성일중 위원님, 강선영, 박선원, 임종득, 유용원, 김병기, 천하람 그리고 김병주 간사 위원님, 저 위원장도 역시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아홉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규백……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딱 30초만 다음 예결소위 때 요구할 게 있어서……

○위원장 진성준 자료요청이십니까?

○김병주 위원 자료요청보다 보고해 달라는 것……

○위원장 진성준 예, 그러면 하시지요.

○김병주 위원 장관님 예결소위 할 때 작년에 예결위에서 국방부 감사를 요구한 건이 있습니다, 드론과 관련된 것. 결과를 예결소위 할 때 좀 보고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드론과 관련해서요?

○김병주 위원 예.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국방부에다 감사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김병주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 감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국방부 감사가 끝났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거를 예결소위에 좀 보고를 해 주셔야……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결소위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진성준 안규백 국방부장관님과 각군 총장님 그리고 홍소영 병무청장님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률안심사(7인)	김병주 김성희 민홍철	더불어민주당(3)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	국민의힘(3)
	김병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심사(8인)	◎김병주 박선원 천준호 황명선	더불어민주당(4)
	강선영 성일종 유영하	국민의힘(3)
	천하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청원심사(5인)	김민석 송영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3)
	임종득	국민의힘(1)
	김병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군복지개선(5인)	김병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2)
	◎강선영 유용원	국민의힘(2)
	천하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6인)

강선영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성희 민홍철 박선원 성일종 송영길 유명하
유용원 임종득 진성준 천준호 천하람 황명선

○출장 위원(1인)

한기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전문위원 문성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 안규백
차관보 원종대
기획조정실장 김은성
국방정책실장 김홍철
인사복지실장 김성준
기획관리관 오성식
법무관리관 이광표
감사관 김신숙
계획예산관 양성태
국방개혁기획관 차원준
정책기획관 우경석
국제정책관 김학조
인사기획관 이인구
예비전력정책관 김선봉

보건복지관 성기욱
 군사시설국장 천승현
 전력정책국장 김기영
 국방정보화국장 염주성
 군수관리국장 이갑수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전준범
 군인권개선추진단장직무대리 김미성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승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정철재
 국방보좌관 유희승
 정책관리담당관 박동걸
 합동참모본부
 차장 권대원
 육군본부
 참모총장 김규하
 해군본부
 참모총장 김경률
 공군본부
 참모총장 손석락
 해병대사령부
 사령관 주일석
 병무청
 청장 홍소영
 기획조정관 김인환
 병역자원국장 정재숙
 입영동원국장 최정효
 사회복무국장 서승일
 방위사업청
 청장 이용철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정재준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정기영
 기획조정관직무대리 김경호
 방위사업정책국장 정범승
 방위산업진흥국장 이형석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기동사업부장 고희석
 함정사업부장 최상덕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노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이건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신상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손재홍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9. 김남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9. 김남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3)

이상 2건 7월 30일 회부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1.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41)

8월 3일 회부됨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3.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3.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73)

이상 2건 8월 4일 회부됨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27)

8월 5일 회부됨

군무원복지기본법안

(2026. 8. 6.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79)

8월 7일 회부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7.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03)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

(2026. 8. 7. 유용원 의원 등 42인 발의)(의안번호 2220504)

이상 2건 8월 10일 회부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2. 김준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56)

8월 1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8. 4.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8. 4.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32)

이상 2건 8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8. 10.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0)

8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청원 회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 복무 기록 공개에 관한 청원

(2026. 8. 14. 고태영 외 50,00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33)

8월 14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제출일
대통령령	제36549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6. 08. 05.
국방부령	제1217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6. 07. 29.

○보고서 제출

2026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제출

(2026. 7. 30. 국방부장관 제출)

2026년도 2분기 예산 이용·전용·이체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제출

(2026. 8. 6. 병무청장 제출)